

할렐루야! 진정한 교회의 머리이며 근본이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주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이로 부활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광 올려 드립니다.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로새서 1:18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3년4월 22일 (토) 제 1918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부흥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TGC, 돈 카슨 목사의 “부흥이 올 때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사항” 소개

돈 카슨(Don Carson)은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신약학 명예교수로 사역했고, 팀 켈러 목사와 함께 TGC(The Gospel Coalition)를 설립하고 2019년 까지 대표로 섬겼다.

최근 애즈베리 부흥 운동이 복음주의권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가 2018년에 쓴 글(“When Revival Comes”, Themelios 43, no. 2, August 2018)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해야 할 일”을, 신학자이자 목회자로서 제시한다.

최근에 나는 복음을 적대시 한다고 알려진 한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교회 개척은 힘든 일이다. 거기에서도 열정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소수의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매우 느리다. 나는 그런 곳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와 전도자, 교회 개척자를 따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존경한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기쁨이자 특권이다.

그들 중 몇 명과 함께 식사하던 중, 한 목사가 말했다. “나이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큰 곳에서, 복음을 향한 격렬한 반대 속에서 사역하면서 평생을 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든 더 큰 지역에서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말입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 내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의미심장한 질문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형제가 염세주의에 빠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고작해야 작은 역사가



일어나는 날에 충성을 다하면서도, 주님의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님을 확신하고 있다. 적지 않은 목회자가 복음을 향한 반대가 심할 때 경건하게 사역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다. 문제는 반대의 경우이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개혁과 부흥의 축복으로 쏟아질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이 꽤 많다.

나는 부흥이 도래한 곳의 가장자리에 몇 번 있었던 적이 있다. 1970-71년, 이른바 캐나다 부흥이 캐나다 서부 지역을 휩쓸었을 때 (수레라 쌍둥이가 이끄는 사역에서 촉발), 나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로 섬기고 있었다. 나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교회가 서른다섯 개에서 고작 8년 만(1972-80)에 오백개 가까이 증가하는(퀘벡의 경우) 전례 없는 부흥의 역사를 목격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부흥과 가짜를 구분

하기 위해서 내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를 공부했다는 사실이다. 나의 경험과 독서, 성경 이해를 바탕으로 부흥이 올 때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진짜 부흥과 가짜 부흥을 진지하게 다루는 문헌을 읽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A Faithful Narrative of the Surprising Work of God’,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와 ‘A Treatise Concerning the Religious Affections’, 신앙감 정론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 에드워즈는 부흥이 드러내는 다양한 현상에 매우 개방적이지만, 진정한 부흥은 결코 단지 눈에 보이는 드러남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의와 복음으로 가득한 진실함(integrity)에 달려있음을 강조한다.

에드워즈 이후 약 백년 후에 캔터키와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부 “부흥”은 9개월 후에 눈

에 띄게 많은 숫자의 사생아를 만들어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감정적 강렬함은 종종 진밀감과 결합한다. 따라서 그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닌 경우, 부흥의 결과로 의로움을 날기보다는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더 크다. 남용에 대한 지식은 거만한 냉소주의를 낳기 쉽고, 반대로 부흥에 대한 지나친 열광은 어리석은 순진함을 낳는다. 냉소하지 말라. 그렇다고 속아서도 안 된다.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2.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라.

자신의 마음을 계속 주시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의 불꽃을 부채질하라. 일상적인 은혜의 방편(ordinary means of grace)을 많이 사용하라. 부흥이 가져다주는 감동함에만 의지하지 말고 성경 읽기, 기도, 자기 성찰과 고백, 자기 이익에 대한 죽음,

(3면으로 계속)



예수님처럼, 다양한 리더십으로 양떼를 품는다!

리더십저널, 켄 보그스/마이크 캠프이넨의 예수님의 행동유형에 드러난 리더십 스타일 소개

DISC 행동 유형 분석을 통해 리더십의 다양한 유형을 제시하는 켄 보그스(Ken Voges)는, 그의 책 행동유형으로 배우는 예수님의 리더십(DISCovering the Leadership Styles of Jesus)에서, “유능한 지도자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척도는 필요와 상황의 요구에 따라 리더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유능한 리더는 다양한 리더십 유형을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변화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넘어 지역사회에까지 리더로서의 영향력을 끼치신 한 사건을 예시로 들어 유연한 리더십의 변화에 대해 설명한다. 그 사건은 바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다룬 요한복음 8장 1~11절의 사건이다. 과연 이 유명한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리더십의 변화를 보이셨는지 살펴보고, 교회의 리더로서 나에게 더 보강되어야 할 리더십 유형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갑작스런 상황에 침착히 대응하는 안정형(S) 리더십

먼저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배우러 찾아온 무리들에게 사교적이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이고 계셨다. 권위있는 내용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듣는 사람이 편하게 들 수 있는 격려와 친밀함의 태도

로 앞서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런 상황 속에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끌고온 유대교 종교지도자들의 등장은 예수님이 형성하고 계신 운우하고 친밀한 리더십에 도전 을 일으킨다. 그들은 매우 격렬한 태도와 주장을 펼치며 편협한 주장에 대해 당장 답변하라는 급박한 상황을 만들지만,

(6면으로 계속)



3면 시론 이동진 목사



4면 푸른초장 이인승 목사



16면 인터뷰 홍은선 선교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 퍼 스 | 온 라 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월드쉐어USA**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김스전기양)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단체티 제작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 Step 1: 디자인/견적문의
- Step 2: 주문하기
- Step 3: 시안확인/수정
- Step 4: 상품수령

문의 환영!



어린이 단체티 부터 청장년 단체티까지 전 연령 단체티를 모두 한곳에서 주문 가능

‘히즈핑거물에서 쉽고빠르게 제작!’

문의: 718-886-4400 / info@chpress.net

Hisfinger / Psalm 8:3

발행인 칼럼

힘 빼세요, 힘 내세요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얼마 전 필자가 섬기는 교회의 원로목사님 이셨던 고(故) 장영춘 목사님의 3주기가 있었다. 목사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목사님의 남겨진 노트에서 '힘주지 말라'는 글귀를 보게 되었다. 어느 때인가 교인들에게 강의하신 내용이었다. '목에 힘주지 말라, 말에 힘주지 말라, 눈에 힘주지 말라'는 세 구절이 쓰여 있었다. 짧고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이었다. 힘주는 것은 바리새인 같은 특정한 이들의 점유물이 아니다. 우리도 순식간에 힘을 준다. 오랜 교인이라도 쉽사리 교만에 빠진다. 그러나 다윗이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도 외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시편 31:23)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니 목에, 말에, 눈에 힘준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간파하신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힘 빼세요'라고 강조 또 강조하신 것이리라.

이런 글을 읽었다. 주전 4세기 그리스에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다. 하루는 디오게네스가 어느 부잣집으로 초청받았다. 초청의 이유는 곧 드러났다. 부자가 디오게네스에게 자신의 으리으리한 집을 자랑하기 위해서였다. 부자는 집 자랑하면서 목에, 말에, 눈에 점점 그리고 마침내 잔뜩 힘이 들어갔다(필자의 표현). 그런데 갑자기 디오게네스가 부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디오게네스는 너무나 당황해하는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집은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군요. 그래서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가 침을 뱉을 만한 곳이 없더군요. 단지 교만으로 가득한 당신의 얼굴이 내게는 쓰레기통처럼 보이더군요.' 이 무슨 망신인가. 그렇다. 목에, 눈에, 말에 힘이 들어간 사람은 멋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처량해 보인다.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아빠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이들 가르치고 먹여야 하겠기에 온갖 풍상(風霜)을 겪어가면서도 주어진 자리를 꿰뚫어 지키는 이들이 아버지이다. 아빠의 일터에서 무슨 일이든 안 일어나겠는가. 어느 날 힘이 빠진 채 집으로 돌아온 아빠를 바라보며 부른 어린이들의 노래가 있었다.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문 앞에서 계셨죠/ 너무나 반가워 웃으며 아빠하고 불렀는데/ 어쩐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 있나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힘내세요. 아빠' 우리의 목회 현장, 삶의 현장에도 수많은 일이 일어난다.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날이 있다. 마음이 더 아픈 것은 그런 날에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무심하게 지나치던가 오히려 그들로부터 어이없는 핀잔이나 원망을 듣는다. 그런 세상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시니까 그럭저럭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격려가 더 필요하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24-25)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힘내세요'라는 격려가 필요하다. 우리가 함께한다는 응원이 필요하다.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서게 하는 힘, 칭찬이 절실히 필요하다.

빼야 할 힘이 있고, 내야 할 힘이 있다. 서로 바꾸지 않게 하자. 이 둘을 분명히 하면 겸손하면서도 동시에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다.

망명지를 찾던 중국 기독교인들, 드디어 미국으로 간다

월스트리트저널, '메이플라워 교회' 로 불리는 선전 개혁교회 신도들 미국 입국 소식 보도

63명의 거의 모든 선전 개혁교회 교인들이 미국에서 부활절을 축하했다. 28명의 성인 교인들과 35명의 아이들을 방콕 경찰이 체포한 지 일주일 만에, 그들 중 59명이 미국의 새로운 정착지로 이동했다. 한 임산부와 그녀의 가족은 4월 20일로 예상되는 아기의 출산까지 방콕에 머물 예정이다. 이들 또한 석방되어 지금 호

텔에 머물고 있다(Chinese Church Group Flies to the U.S. After Three Years in Self-Exile: All 63 members of the Shenzhen Holy Reformed Church are bound for Texas after departing Thailand by plane following weeklong detention).



월스트리트저널은 유엔난민기구 대변인과 태국 경찰 관계자를 통해 이 단체가 태국을 떠난 사실을 확인했다. 저널에 따르면, 태국 당국은 비자 만료로 구금된 교회 신도들을 추방할 계획이었다. 신도들은 2019년 말과 2020년 초에 건넌 한국이 망명을 허용하지 않자, 태국으로 이주했다.

이제, 이 공동체는 성 금요일에 델러스에 도착한 후, 종교 박해 옹호 단체(Freedom Seekers Internationa)가 그들을 재정착 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타일러 시로 이동할 것이다. 미국의 활동가들은 미 국무부가 이 사람들을 중국이 아닌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을 확인했다.

선전 개혁교회 교인들은 오랫동안 미국에 재정착하기를 희망했는데, 그 결과 미국 종교 자유 위원회 위원장인 프랭크 울프 전 하원의원과 차이나에이드 밥 푸 대

향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메이플라워 교회'로 불리는 선전 개혁교회 신도들은 2019년 새로운 종교법에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의 망명을 시도하다 실패한 뒤 태국으로 건너와 방콕에 위치한 유엔난민사무소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판 목사가 이끄는 중국 정부 미등록 교인들은 감시와 심문이 강화되자 투표를 통해 중국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중국 공안은 판 목사가 교회와 그 교회가 운영하는 기독교 학교를 폐쇄하고 서방 교회와의 접촉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요했다. 교인들은 처음에 망명을 희망하며 한국의 제주도도 갔지만, 그들의 호소는 반복해서 거절당했다.

이들은 유엔으로부터 난민 지위를 얻기를 희망하며 태국으로 이주하기로 다시 투표를 결정했다. 방콕에 도착한 후, 이들은 2년 보다 더

걸릴 수 있는 난민 승인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미행당하고 위협당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브라운 씨는 금요일 이른 아침 메이플라워 교회 신도들과 함께 밤을 보낸 파타야 경찰서에서 "미국 정부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곤경을 보고, 미국이 그들을 구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단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들은 모두 극도의 긴장 가운데 있고,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들이 모두 격려받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이토록 오랜 기간 숨고, 피해 다니면 점점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 665-0009 (대표) (213) 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2, July 4, and Nov 25.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물: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담임목사 청빙공고

워싱턴주(WA) Bellevue에 위치한 벨뷰한인장로교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서북미노회 소속 교회로서 현 담임목사님께서 은퇴하시게 되어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청빙요건

- 1. KAPC 소속이거나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2.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으로 목회하실 분
3.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영어소통이 되시는 분

제출서류

- 1. 이력서(가족사진 포함) 및 학력증명서
2. 목사안수증명서 및 2인 이상의 추천서
3. 자기소개서(목회철학, 비전, 계획 포함)
4. 최근 설교영상 2편(온라인 링크와 원고)

유의사항

- 1. 제출마감일 : 2023년 4월 29일
2. 서류심사후 개별통지함
3. 보내실 곳 : bellevuekpc@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벨뷰한인장로교회 청빙위원회

3105 125th Ave. SE, Bellevue, WA 98005 Website : www.bkpres.org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료보험이나 신문에 관계없이, 40 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집에서 완료 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흥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1면에서 계속)

십자가를 향한 기쁨의 집중, 신실한 전도와 섬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는 간절한 기대감을 쉬지 말고 의지하라.

일상적인 은혜의 방편을 무시하고 대대적인 부흥 운동에만 영적 생계를 의존한다면, 아주 잠깐은 만족을 느낄지 모르나, 한때는 미친 듯 열광하더라도 지속적인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3. 모든 에너지를 예수님께 향하라.

부흥이 오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 무한한 힘을 발휘한다. 복음의 사역자로서 넘치는 에너지를 성경 공부와 기도,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한 회중 예배로 향하도록 하라. 부흥의 체질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을 향해 모든 초점을 맞추라. 부흥의 시대는 경건을 가장한 진부하기 이를 데 없는 표현으로 넘치는 대화가 아니라 기쁨 부음 받은 강해 설교에 대한 강화된 헌신을 요구한다.

퀘벡 운동과 관련하여 일어난 위대한 일 중 하나는 선견지명으로 넘치는 SEMBEQ(Séminaire Baptiste Évangélique du Québec)의 설립이다. SEMBEQ는 그 세대와 다음 세대의 신학 및 목회 훈련을 위한 통로가 되었다. 부흥이 가져다준 에너지가 훈련으로 올바르게 전환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운동을 단지 어리석음과 아련한 향수 속에 시들어버린 추억으로 착각하기 쉽다.

4. 언론을 멀리하라.

투명하게 하라. 이게 일반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실상 엄격하게 권장되지도 않지만, 투명함이라는 목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큰 축복의 시기에 봉사하고 있다면, 굳이 알리려고 애쓰지 말라. 부풀리거나 홍보하려고도 하지 말라.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확장해야 한다. 그러나 술수가 아닌 오로지 봉사과 가르침, 설교로 역사를 이루라.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언론이 찾아올 것이다. 당신이 강조해야 할 것은 비길 데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자신을 낮추며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리고 “스타”와 “유명 인사”를 홍보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라. 부흥을 분석하고 그것을 다른 데로 퍼뜨리기 위해 부흥을 “포착해 내려고” 때를 지어 도착하는 “전문가”를 온 힘을 다해 피하라.

1972년에서 1980년 사이에 퀘벡에서 일어난 부흥 사역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린 큰 이점 중 하나가 다른 언어 장벽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낼 만큼 프랑스어를 제대로 아는 미국 언론이 거의 없었다. 물론 오늘날 가장 빠른 형태로 배포되는 (

악의적인 공격을 포함해서) 형태는 전통적으로 “언론”이라고 표시된 기관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와 연결되었기에 피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그러나 당신의 영향력이 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올바른 초점을 가지도록 장려하라. 자제력을 키우고 분노로 얼룩진 블로그에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 평소의 사역에 조율한 인내로 충성하는 동시에 당신의 명성을 높이는 소문이 들릴 때는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5. 조작을 피하라.

캐나다 부흥 기간에 나는 즉석에서 있었던 간증 하나를 기억한다. 부흥 전까지 직업에 몰두하던 행복한 세속주의자가 갑자기 부흥이 시작된 서스캐처원(Saskatchewan)에 있는 교회 건물에 들어가야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 내용은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에 압도된 그는 극적으로 구원받고 변화되었다. 그의 간증은 설득력 있고 강력했다. 사람들을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인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술프케도 어떤 목사가그 지역 목사가 아니었다) 그를 설득해서 캐나다 전역의 주요 장소에서 간증 집회를 하도록 했던 것이다. 나는 그의 간증을 뱀구버어서 다시 들었다. 전에 들었던 것과 내용은 똑같았지만, 능력 있던 간증은 어느새 뻔한 이야기로 전략한 상태였다.

자발적이고 성령의 기쁨 부음 받은 간증이 부흥을 다른 곳으로 퍼뜨리기 위한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 한낱 조작물로 전략한 것이다. 기독교 지도자라면 최소한 그런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설교하는 대신에 감동적인 간증에 더 의존한다. 자발적이고 역누를 수 없을 정도로 부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 열정과 조작 사이의 경계가 위반된 사례를 찾는 것은 오늘날 조금도 어렵지 않다.

6.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부흥 운동이 당신에게 달려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20세기 동안 한국의 회심자의 숫자와 신학적 성숙도가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반면에 일본은 반대로 지지부진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 지도자가 일본보다 훨씬 더 유능하거나 재능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려야 할까? 왜 요시야는 민족의 부흥을 주관했는데, 예레미야는 평생을 오로지 눈물로 지새고, 용기를 떨어뜨리는 예언을 선포하고, 심판을 외치면서 보내야 했을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위대한 갱신의 시간에 참여하는 특권을 주신다면, 기쁨을 주신 그분께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신실하게 전달하는 자가

되기 위해 자신을 바치라. 무엇보다 겸손을 길러야 한다.

7. 운동의 인기에 따라다니는 위험을 조심하라.

많은 전문가가 오늘날 복음의 많은 지역에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수가 급감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런 변화는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을 소외시키고 반대하는 사회적, 문화적 세력이 확산하면서 촉진되고 있다. 반대가 많은 곳에서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수가 감소한다. 그러나 동시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분별하기가 더 쉬워진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운동이 대중화되면 새로운 위험에 직면한다. 비록 처음에는 많은 반대에 부딪히는 개혁과 부흥 운동이라고 해도, 일단 대중화에 성공하면 많은 사람이 거기에 승선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런 현상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분별력을 간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8. 그저 자연주의적 설명으로 그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라.

진정한 부흥 운동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리고 그 운동의 여파가 남아있는 이후에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촉발한 상황이 무엇인지 물을 것이다. 일반적인 이유를 작성하는 것은 쉽다. 기도하는 형제자매 모임, 갱신을 열망하게 만든 영적 타락의 시간, 문화적 불안과 격변(퀘벡에서는 “조용한 혁명”으로 불렸다) 등등이다. 그러한 현상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섭리의 손길을 찾는 것은 전적으로 합리적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을 보고하는 건전하지 못한 설명 방식이 있다. 이러한 현상이 그 자체로 부흥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인상을 주는 설명, 그리고 이런 현상을 다른 곳에서 복제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부흥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암시하는 식이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문화 현상에 수반되는 모든 것이 부흥 없이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무도 이러한 현상을 근거로 부흥의 시작을 예측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 의해서 길들지 않으신다. 지나치게 자세한 분석은 나 자신의 홍보 외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지나치게 자세한 분석은 인간이 운동을 통제한다는 인상마저 줄 수 있다. 물론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렇다고 드러내서 말할 정도로 명명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역사와 문화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깊이 숙고하라.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섭리의 손길을 분별하라. 그러나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가 나쁘다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창 24:50)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겨두도록 하라.



시론

아직 장로 안되었어요?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어제도 인근교회 장로임직식에 다녀왔다. 임직자는 장로 한 명. 성기대의 찬양과 깔끔한 설교가 마친 후 단에 올라가 내게 맡겨진 축사와 권면을 했다. 이어진 임직 순서, 서약과 안수기도 그리고 임직패와 꽃다발 증정을 하고 임직자가 속한 남성중창이 울려 퍼진 후 담임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목회자의 아들로 자란 임직자인 신입 장로는 옛그제 아버지 묘소에 다녀왔으며 성도들과 교회에 부끄럽지 않은 장로,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장로가 되겠다고 인사를 했다.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잔잔한 감동이 흐르는 이날 임직 감사예배의 하이라이트는 담임목사의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교회에 한 명의 장로를 세우는 담임목사는 안수기도하면서, 임직패를 읽으면서, 축도 하면서 자주 울먹였다. 장로를 세우며 울먹이는 목사에게서 이 교회의 참모습이 보였다.

몇 달 전 SNS에, 제법 규모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한 집사님의 글 몇 줄이 눈에 띄었다. 자세한 문장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장로 직분에 대한 고민을 솔직하게 써놓았던 몇 줄의 글이었다. “나도 60을 훌쩍 넘겼는데 아직도 장로가 안(못)되었나?”는 질문을 가끔 받는데 솔직히 기분이 안 좋다는 고백과 함께 아무리 봐도 잘 훈련된 교단소속 교회가 아닌 교회에서 어떻게 장로직을 받은 것 같은, 나이도 더 젊은 사람(그분의 표현)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자기를 “O 집사는 왜 그래~~?”라며 반말 비슷하게 말하는 데 속이 뒤집히더라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직분이 뭐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교회 섬기면 되지... 평생 교회 생활 해온 내가 잘 살아온 것인지 바보같이 살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내용의 글이었던 것 같다.

한국교회의 장로 직분에 대한 의견 다툼은 꽤 오래되었다. 장로(長老)라는 한자어의 의미부터, 장로 선출에 대한 문제, 임직 예배와 교회 행정과 치리(治理)에 관한까지, 결국 많은 교회 싸움의 불씨가 장로(목사와 장로)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한국에서 본격적 직분에 관한 논쟁이 일었던 것이 벌써 20년쯤 전이다. 당시 서울의 한 교회가 장로와 권사들에게 특별한 직무 대신 단순히 명목상의 호칭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 소속 교단으로부터 비판과 논쟁이 일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교회는 소속 교단으로부터 탈퇴하게 되었다.

이민교회 현실 속에서 교회의 직분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성숙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미 치리(治理)를 잃어버린 교회, 본질(本質)이 희미해진 교회의 현실 속에서 직분이 가져야 하는 ‘거룩과 진실과 성실’이 무시와 조롱을 당하고 동네 ‘아줌마’ ‘아저씨’ 또는 그 흔한 ‘사장님’ 같은 호칭 수준으로 취급당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원칙이 없어 혼탁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가진 능력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혼탁해진 것이 아닌가? 우스갯소리로 사랑교회에는 사랑이 없고, 은혜교회에는 은혜가 없고 소망교회에선 소망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농담에도 이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모습들, 친절하지도 않고 가격도 만족스럽지 않은 가게에서 장로님으로 불리는 것으로 위세를 떠는 사장님들이 살아가는 세상살이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장로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당분간 위장(僞裝)하고 앉아있는 교회의 해법은 무엇일까? 도무지 장로로 세울 수 없는 사람의 세상 권력을 이겨낼 수 있는 목사는 얼마나 될까? 성경과 교회 헌법은 장로와 직분자들에 대해 분명한 지침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무너진 담으로 온갖 들짐승들이 맘대로 드나드는 것처럼 만신창이가 된 이민교회라고 말하면 너무 가혹한 것인가? 목사와 장로라는 호칭을 돌쇠, 마당쇠로 바꾸면 어떨까? 목사회를 돌쇠 모임으로, 전국 장로협의회를 전국 마당쇠 모임으로 하면.....

한국의 초기교회 역사는 교회의 신성함과 성결함을 강조했다. 오늘 이민교회는 그 거룩함과 성결을 놓치고 듣기 좋은 말로 약함과 더러움과 무지함과 욕심들을 포장했다. 그래서 외형은 흠잡을 데 없는 비싼 상품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 듣기 좋은 말로 신물 포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하는 강직(剛直)한 교회가 필요한 시대에서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한다. 그래야 아직 ‘장로가 안(못)된’ 사람들도 마음에 아무 거리낌 없이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djlee7777@gmail.com

Advertisement for Global Leadership Seminar & 2023 Commencement at Midwest University. Includes dates (1986-2023), seminar details (May 15-18, 2023), and speaker bios (박동선 회장, Dr. Bill Federer, 양춘길 목사, 권준 목사, Dr. James Song 총장).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림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부활을 믿은 사람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Domitianus 81-96)가 있습니다. 그는 네로 황제가 원로원에서 갑자기 축출됨으로 그의 근위대장으로 있던 중,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된 베스파스안(Vespasianus 69-79)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장남인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티투스 황제의 친동생인 도미티아누스는 권력욕이 대단했습니다. 그의 형 티투스 황제가 일찍 죽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반란을 일으켜서라도 황제의 자리

에 오르려 했을 거라고 역사가들은 언급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는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황제 중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인지 모르나 그에게는 대를 이을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촌 동생 클레멘트의 아들을 양자로 들여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황제의 사촌이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이름이 클레멘트라는 사실 때문에 다양한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 그는 사도행전에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낸다고 한바, 이 데오빌로가 혹 황실의 가족의 일원이었던 클레멘트가 아닐까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빌립보에서 바울이 클레멘트를 언급한바 그 사람이 아닐 까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간극이 크다는 이유로 동명이인으로 파악합니다. 그런데 클레멘트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황제의 양자로 보냈기에, 시간이 지나면 황제의 아버지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세상 적으로 보면 놀라운 권력의 기회를 붙잡게 된 사람입니다. 아들이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황제의 독재가 유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귀에 사촌 클레멘트가 기독교인이라는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불리 확인을 하게 되었고, 로마 황실에서는 허락할 수 없는 일임을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고 한 마디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클레멘트는 자신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고 고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 황제는 그의 아들이 장자 로마 황제가 될 처지인데, 전통적으로 로마의 황제는 그 자신이 신이

라고 여겨 숭배하는 길을 포기하고, 근본도 없는 정복지의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로마 황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였으나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황제의 청을 거절하게 되면, 양자로 들인 것도 과양하게 되고, 본인도 황제의 명을 거스르는 일로 목 베임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클레멘트였지만, 신앙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쯤 되니 오히려 황제가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 원로원의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황제는 많은 고민 후, 결단하였습니다. 즉 클레멘트는 사형에 처하고, 양자로 들인 조카는 과양하였고, 제부는 로마에서 멀지 않은 벤토테네(Ventotene) 섬으로 귀양을 보내는 것으로 일 단락 지었습니다. 무엇이 클레멘트로 하여금 세상적으로 찬란하고 영화로

운 길을 포기하도록 하였을까요? 그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받은 생명의 복음은 너무나 귀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영생을 얻기를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황실에서 하루가 멀다고 벌어지는 화려한 연회보다도 말입니다. 콜로세움에서 일어나는 검투사 경기의 열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토록 귀한 것인데, 그 진가를 아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앞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이 있기에 클레멘트는 찬란하게 보이는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영원한 부활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이인승 목사
(새민음장교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할 것이다. 본문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바로 이단들이 주장하는 끝없는 족보 이야기와 허탄한 신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신화와 족보를 이렇게 무의미한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옳은 말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동역자들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망령된 이야기들이나 허탄하고도 헛된 신화들을 다 던져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연습하면서 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서 먼저 나오는 “말”이란 공개적인 설교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모든 대화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행실”이란 다른 사람과 관계되는 모든 행동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란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적인 성품들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들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되는 생활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사랑”이란 우리의 말과 행위로 표현이 되는 것이요, “믿음”이란 그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마지막에 나온 “정절”이란 헬라어로 “하그네이아”인데, 이것은 “순결한 양심을 지킨다”에서 유래된 말로, 생활에 있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실제로 본을 보이면서, 모범을 보이는 자들이 되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4)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말씀이 있다. 여기서 “읽는 것”이란 공개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의미한다. 또 “권하는 것”이란 성도들에게

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해야 할 것이다.

본문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명령을 볼 수가 있다. 여기 “이 모든 일”이란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수행해 나가야만 하는 모든 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란 구체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나 성도들의 가정을 심방하여서 성도들을 권면하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나, 전력을 다하여서 설교하는 일, 또한 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 성도들을 위해서 장례식을 집례하는 일, 성도들의 결혼식을 집례하는 일, 성도가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에 그 출산함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거나 백일 감사 예배나 아니면 돌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일 등등 목회 전반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 전력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숙함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줄로 믿는다. 제가 최근에 교우들로부터 큰 칭찬을 받을 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르겠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제가 하늘로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영감이 풍부하고,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으며 칭찬을 듣게 될 때에 정말 하늘로 날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 것이다. 우리 모든 동역자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께서 모든 사역에 전심 전력을 다하게 되므로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란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한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실천하게 되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모두 다 되어서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칭찬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한다. 아멘, 할렐루야! inseunglee1954@gmail.com

1)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먼저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만 한다.

본문 6절에 다시 보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일꾼”이란 말의 “디아코노스”란 말은 디모데전서 3:8절과 12절에서 “집사”라고 하는 전문 용어로 사용이 되었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로서, 일평생 동안을 변함없이 꾸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며,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부터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은 먼저는 믿음의 말씀과 말씀에서 주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날마다 양육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여기서 “믿음의 말씀”이란 우리 기독교의 진리와 참된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요, “좋은 교훈”이란 거짓 교훈과 대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하고도 좋은 교훈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2)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망령되고 허

튼 것으로 여기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내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여기서 “경건”이란 바로 “순결한 양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건의 연습은 8절에 나온 육체의 연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현재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습하라”고 번역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육체의 연습을 하는 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을 하게 되면 범사에 유익하므로 금생에도, 내생에도 약속이

는 날마다 순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 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날마다 경건의 연습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3)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본문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엿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야만 할 분야가 모두 다섯 가지의 분야임을 알 수가 있다. 여기

죄가 없는 것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철저한 순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를 사는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말로만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교훈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는 말에 있어서도, 행실에 있어서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만 할 것이요,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본을 보이지 아니하고 말로만 가르친다거나 말로만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동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교리와 도덕에 어긋남이 없게 하려고 충고도 하고, 권유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가르치는 것”이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변함이 없이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는 일에, 그 말씀을 가지고 권하는 일에,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서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실천해 나갈 때 우리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5)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성숙함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디모데전서 4:6-16



아는 게 힘이다! 가시관 전쟁



플로리다주지사가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 통과

가장 기본적인 "Notify parents,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A.B.1314 는 공청회(Public Hearing) 업데이트 및 지지해야 할 발의안들!

캘리포니아 AB1314발의안 내용요점: 이 발의안은 정부관련 학교 및 학교들에 요구하기를, 12세밖에 안 되는 미성년 학생들이 자신의 이름, 성별을 포함한, 성적성을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최소한, "학부모에게 먼저 Notify 알려달라" 라는 내용입니다. 학부모로서 최소한 알아야 할 내용을 학교가 학생들을 상담한다는 명목 아래, 자기들끼리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학부모들에게 미리 알려달라는 내용이 바로 AB1314의 요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 AB1314 가 공청회 날짜가 잡혀야 하는 4월 12일, 민주당 소속의 하원 교육 위원회의 의장인 Al Muratsuchi (D) 의원이 AB 1314 공청회 일정을 HOLD 하겠다고 하였는데, 결국은 공청회 날짜 잡는 것을 거부하여 첫 공청회가 잡히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의회에서 어떤 발의안이든, 공청회 일정을 잡아주지 않으면, 발의안의 필요성에 대해 논쟁을 할 기회조차도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쪽에서 이미 제출한,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또 다른 두가지 발의안들(예: H.R.1585, AB 802) 공청회 스케줄도 잡히지 않은 채 Inactive (켄슬)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감사기도 많은 노력 끝에, A.B. 802는 이번주 수요일 4/19일에 잡혔습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세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캘리포니아 하원 교육부 위원회는 최소한의 학부모 권리를 주는 것마저 거부할까요? 다음 상황들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이미 올라와 있고 4월 초에 하원 교육 위원회 공청회에서 과반수로 통과된 AB665 나 AB957

같은 발의안들이 AB.1314의 내용과 상반된다는 이유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학부모의 권리를 차단시키는 것이 목적인 AB665와 AB957이 첫 공청회를 통과한 상태에서, AB1314는 두 발의안과 상반되기 때문에, 공청회 기회를 얻는 것조차 격렬히 반대하는 의원들이 과반수가 넘는 것이 insider들의 업데이트입니다. 참고로 저희 쪽과 함께 일하는 A.B.1314 발의자와 공동발의자들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2명뿐이랍니다. (예상했지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고로, AB665, AB957은 '성 정체성 혼돈에 의한 자녀들 정신 상담, 정신건강 치료 교육' 으로부터 학부모들을 제한/차단하는 것을 요구하는 발의안들입니다. 한마디로 자녀들과 부모들이 대화로 풀 수도 있을 내용들이 정부 관련 학교들의 개입으로 divide 되는 것입니다.

2) 두 번째 이유는, 트랜스/동성애 운동단체들과 기업들이 힘을 모아 다음과 같이 동시에 학교들과 입법부에 압력을 보내왔습니다.

AB1314 를 지지하려면 CVUSD (Chino Valley Unified School District) 학교에 엄청난 반대 의견들이 폭풍처럼 들어왔을뿐 아니라, A.B.1314 를 취소시키기 위해, 군대 같은 반대세력의 army가 학부모와 학교 보드미팅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동성애 / 트랜스 학생들을 일으키고, 교육하는 비영리단체로 알려진 Stone Wall Alliance of Chico (스톤월얼라이언스) 는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트랜스 유스 -성별을 바꾸는 청소년" 들을 "부모들로부터 보호"할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CVUSD, CUSD와 하원교육위원회에 신속히 보내고 A.B.1314 에 반대하라는 긴급 요청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LGBT 사업체들은 4월 5일과 6일, Chico Unified School Board(CUSD) 와 CVUSD에서 있을 미팅에 참석하여 "트랜스 키즈(성별을 바꾸려는 어린이)를 지원하라"는 Flyer 전단지들 두루두루 곳곳에 붙였습니다.

동시에, 트랜스 학생 운동가들과 스스로를 "트랜스"로 명칭 하는 학생 / 젊은 트랜스들까지도, 두곳의 치노 학교들에서 있을 미팅에 참여하여 CUSD 미팅은 자정이 한참 넘어서 끝났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LGBTQ 인권단체들의 목소리가 되어 있는 캘리포니아 하원 교육 위원회의 과반수가 넘는 의원들은 이미 AB1314 를 격렬하게 반대하는 상황이었고요.

참고로, A.B.1314 는 트랜스에 대한 반

대를 논하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최소한의 학부모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소식도 있습니다. AB 802 지지!!

AB1314가 비록 공청회 날짜는 잡히지 못했지만, 저희 단체를 포함한 수많은 미국 기독교 단체들이 직접 입법부에 가서 미팅을 잡고 여러 번의 설명을 통해서, AB1314는 취소되지 않고 좀 더 발의안 내용을 민주당 의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감사한 소식은, 혹사라도 AB1314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하여 내놓은 두 가지 발의안들(학부모 권리 존중), A.B.802의 공청회가 4월 19일로 잡혔습니다.

꼭 지지해야 할 발의안, A.B.802 - 학부모의 권리를 되찾는 것에 다시 도전!

A.B.802는 Assembly Joe Patterson (공화당)이 제출하였으며,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는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숨기던 학교 교과서를 학부모에게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를 학부모에게 주셨습니다

모들이 먼저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발의안입니다. 따라서 이 발의안은 학교가, 교과서와 학생들이 배우고 읽게 될 교과서와 관련된 자료 들을 학부모에게 숨기지 않도록 법적 처리를 하며, 미리 모든 내용 들을 학부모들에게 보내서 학부모가 교과서와 수업 자료들을 보고, 자신의 자녀들이 그 수업을 들을지 말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을 돕게 됩니다.

더 자세한 발의안들과 거기에 대한 Action to take는 저희 홈페이지 TVNEXT.org에 가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 저는 현재 비즈니스를 하는 집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업의 의욕과 열정도 좋은데 체질이 약골인지라 일하다가 지치곤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을 많이 닮았습니다. 힘에 밀린 야곱은 나중에는 천사와 씨름하여 이길 정도로 강한 체력의 강골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었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셀비치에서 안 집사

A: 체력은 인생을 사는 기본적인 자산입니다. 건강한 체력과 스테미나는 가장 큰 인생의 자산입니다. 학문도 비즈니스도 주의 일도 체력이 강해야 잘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야곱과 에서의 체력은 벌써 뱃속에서부터 판정이 났습니다. 이 두 형제는 쌍둥이인데 먼저 나가려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는데 힘에 서는 야곱이 에서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형의 힘에 눌려 어머니 태에서 몇 분 늦게 나오므로 결국 동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의 뱃속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 이름이 야곱(발뒤꿈치를 잡다)이라고 창세기 25:26절은 말합니다. 야곱은 이 세상에 나와서도 체력적인 면에서 늘 형에게 눌렸습니다. 형에서는 늘 들판과 산을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많이 했는데 멧돼지

몸이 건강해지자 기도 생활과 경건, 봉사활동 등 주를 향한 헌신과 열정도 더 뜨겁게 살아나

도 잡고 날짐승도 잘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굴이 태양에 타서 건강 색이요 몸도 근육질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늘 집 안에 있다 보니 운동을 안 해 몸이 비실비실하고 약했습니다. 그래서 감기도 잘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골인 야곱이 언제 체력이 좋아졌는지 아십니까? 야곱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원래 성격이 조용한 사람인지라 늘 장막에 거하였는데 형의 낫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해 있을 때 양치는 목동이 되다 보니 낫과 밭 할 것 없이 들 사람이 되었습니다. 양치다 보니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구릿빛이 되고 산과 들을 오르내리다 보니 등산 효과가 저절로 되어 점점 체력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20년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약골이 강골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야곱은 압박강 나무에서 천사와 씨름 할 때도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이미 근육질의 체력으로 강하게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강골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한국의 서정오 목사란 분의 "목마른 인생" 이란 책을 읽어 보니 이분이 주일 아침에 설교하던 중에 호흡곤란이 와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겨우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의 의사가 진단하더니 충고하였습니다. 원인이 3가지인데 1)비만 2) 운동 부족 3) 과로입니다. 이 3가지를 당신이 바꾸지 않는다면 일 년 안에 건강이 급격히 무너져 생명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 이 목사님은 정신을 차리고 운동하기 위해 자기 교인이 운영하는 검도장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검도훈련을 통해 몇 년을 계속하자 10년 전의 나이 때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몸이 건강해지자 기도 생활과 경건, 봉사활동 등 주를 향한 헌신과 열정도 더 뜨겁게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지금부터 걷거나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h3>감사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원어대학생예배: 오후 2:00 글로벌학생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3>나성순복음교회</h3> <p>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23)913-4499, www.lsgc.com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h3>남가주든든교회</h3> <p>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글로벌학생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금) 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h3>남가주사랑의교회</h3> <p>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전 1:20 영아전(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3>대흥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11:0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토) 글로벌학생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h3>디아스포라선교회</h3>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전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h3>미주양곡교회</h3> <p>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3>미주평안교회</h3> <p>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아)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세백기도회(화-토): 오전 6:00 Tel: (213)381-2202, www.mpcas.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p>	<h3>복음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전: 오전 2:00(대학부) 글로벌예배: 오후 7:30 Tel: (626)8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3>베델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영아전: 오후 1:30(수-일) 일요일예배: 오후 5:30(월-토)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hel@bhc.org / www.bh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h3>세계사망교회</h3> <p>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글로벌예배: 오후 9: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225-7691 824 W. Valencia Blvd., L.A., CA 90015</p>	<h3>세계선교회</h3> <p>담임목사: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글로벌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3) 388-1827 / www.wmcc.org / worldmissionchurch3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p>
<h3>셀비치 사랑교회 (Sea Beach Se-Feng Church)</h3> <p>담임목사: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8:30 수요침례예배: 오후 6:30 Tel: (310)749-4756 셀비치 리저빌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부)</p>	<h3>열매교회</h3> <p>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h3>엘피스가족원</h3> <p>원장: 박순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합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 9:45 (분당) E.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 2부예배: 오후 2:00 (분당) K.M. 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 (분당) 세백기도회: (월-토) 오전 5:30 (분당) www.elpisfamily.org Tel: (562)694-6214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h3>은혜한인교회</h3> <p>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글로벌학생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영어예배: 오후 7:30(월-토) 365일 24시간 온오프 Tel: (714)446-6202, www.groceam.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3>주님새운교회</h3> <p>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목: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p>	<h3>주님의영광교회</h3> <p>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ccg.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h3>좋은마음교회</h3> <p>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세백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s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p>	<h3>코너스톤 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3>토렌스조은교회</h3> <p>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분당) E.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 2부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 (분당) 세백기도회: (월-토) 오전 5:30 (분당) Tel: 310-370-5500, www.torancejc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h3>하늘사망교회</h3> <p>담임목사: 김덕수 주일예배: 오전 11: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수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요정: "어성경이 읽어주세요"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h3>미주크리스천신문 과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3>미주크리스천신문 과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남조선과 한국은 다른 나라?

21세기의 세계는 거의 모든 것이 열려있는 중이다. 대다수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은 도깨비방망이보다 더 기묘하다(奇妙妙妙)하다. 아마도 옛날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았다면 놀라서 까부러졌을 수도 있다. 이런 세상을 살고 있으나 예외인 곳(나라)도 있다. 북한(北韓)이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던 조선(朝鮮)이 남과 북으로 갈린 것은 육이오 전쟁이 휴전으로 봉합된 70년 전이다. 조선이란 국호는 1392년 이성계가 고려를 정복한 뒤부터 시작되었으나 이 땅을 조선이란 칭한

것은 훨씬 이전부터였다. 상고 시대에 조선이라 불리웠던 고조선도 있다. 그래서일까? 북한은 아직도 자신들을 북조선, 대한민국인 한국은 남조선으로 칭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질이다. 위에서 언급했듯 같은 땅에 그어진 휴전선은 곧 분단선(分斷線)이 되고 말았다. 분(分)은 나누거나 구별한다는 의미며 단(斷)은 끊거나 쪼개는 그래서 관계와 소통이 막혔다는 의미다. 이렇게 나뉜 선 하나로 인해 남조선은 자유가 전제된 민주주의 나라가 되었

고 북한은 모든 것이 막혀버린 공산주의가 되었다. 폐쇄된 북한 인민들의 삶을 다룬 인권보고서를 유엔은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한국에서도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인권보고서에 실린 내용 들은 탈북민들의 생생한 증언에 기초하는데 대부분이 "이럴 수가" 또는 "저럴 수가"하는 혀를 찰 내용 들이다.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난 김일성의 초상화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되고 한국의 드라마를 보았다 하여 즉결 처형이 되었다는 내용 들이다. 선(線)의 남쪽에 세워진 남한 즉 한국 혹은 대한민국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증언들이다. 여기에 참모도 아이러니한 내용도 있다. 남조선과 한국은 다른 나라로 인식된다는 북조선의 현상이다.

북조선에선 남조선을 극빈(極貧) 집단으로 선전하며 선동해왔다. 그러니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한국이 북조선보다 훨씬 더 못산다고 여기는 한국이 곧 남조선이라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심지어

어 한국의 공식 명칭인 대한민국을 대만의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을 정도라 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수십 년 동안 세뇌되며 속았기에 가능한 북한의 실상이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타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심리나 상황을 조작해 그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한다는 의미란다. 조작된 것들로 인해 판단력을 잃게 하는 정서적 학대와 심리 지배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요즘 재조명이 되는 JMS 사건을 보자.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피드백자들의 처참한 나락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집단에 빠져 있다. 낯을 놓고 기억 자를 모르는 삼척동자라도 충분히 알만한 속임수에 빠져 그 일생을 송두리째 망치면서도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북한 인민들 대

수는 그 정권의 가스라이팅에 함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자유와 인권과 그 삶을 다 빼앗겼음에도 그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신음하고 있는 북조선의 인민들이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극빈의 남조선에는 쌀이 남아돌아 그 처리에 골머리를 앓는 중이나 나름 잘사는 것으로 치부되는 북조선에서는 먹을 것이 없이 수십만 명이 아사 직전에 처해있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물에 빠져들고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그와 가까이 있는 사람뿐이다. 지금 수십 년 동안 가스라이팅으로 지배되고 있는 북조선 인민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는 같은 민족인 한국이다. 문제는 이마저도 쉽지가 않다는 사실이다.

한 때 삼팔선을 넘어 소 떼를 보낸 적도 있고 금강산 관광의 길이 열려 육로로 왕래도 하였으며 개성에 공단을 세워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지금은 굶주리고 있는 북조선 인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남아도는 쌀 한 톨도 육로로는 보낼 수가 없다. 중국을 거쳐

중북국경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다음엔 이런 물리적 장벽보다 더한 북조선 정권이 가로막고 있다. 굶어 죽고 있는 인민들에게 보내는 생필품마저 그 정권이 독식한다. 더욱 불행한 것은 그런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인민들이다. 자신들의 주린 배를 채워줄 곡기마저 남김없이 찬탈하고 있는 그 일당을 신처럼 떠받들 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인민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는 북한 인권보고서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는 안 될 것이다.

철의 장막이라던 소련. 죽의 장막이라는 중국보다 더한 가스라이팅으로 세뇌당한 북조선의 참상을 멈추기 위해 그 가스라이팅을 절단해야 한다. 그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한국에 주어져 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며 한국이 남조선이 아니라라 믿고 있는 북조선 인민들은 강 건너 불구경이 절대 아니다. 지금 이 시간 이런 현실에 내 탓이라 가슴을 쳐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스페이스X "중단한 스타십 우주선 발사 20일 재시도"

미국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 우주선 스타십이 17일 텍사스주 보카치카 해변 스타베이스 발사대에 고정되었다. 세계 2위 재벌 일론 머스크의 미국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카운트다운을 8분가량 남기고 취소한 우주선 '스타십' 발사를 오는 20일 재시도한다.



스페이스X는 18일 홈페이지와 트위터에 "미국 텍사스주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십과 슈퍼 헤비로켓을 이르면 20일에 발사할 것"이라며 "발사 시간은 미국 중부시간으로 오전 8시28분"이라고 밝혔다. 발사 시간의 한국시간은 20일 밤 10시28분이다. 스페이스X는 17일 오전 8시20분 텍사스주 보카치카 해변에 조성한 우주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십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카운트다운을 8분가량 남기고 멈췄다. 이에 따라 스타십의 시험 비행은 연기됐다.

스페이스X는 달과 화성에 사람과 화물을 보내겠다는 목표로 스타십을 개발해왔다. 길이 50m, 직경 9m의 대형 우주선이다. 최대 150t까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다. 이번 시험 비행에서는 우주비행사가 탑승하거나 화물을 실지는 않았다. 하지만 로켓 문제로 발사는 중단됐다. 스페이스X는 "스타십과 연결된 로켓 1단계 부스터에 압력 밸브가 막혔다. 정비를 시도했지만 예정된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美 전기차 보조금 대상 16개 확정, 현대·기아 제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일부 혹은 전액 받을 수 있는 16개 전기차(하위 모델 포함 22개) 대상 차종이 확정됐다. 북미산 조립 요건 외에 배터리 및 광물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해 대상 차종은 지난해 대비 크게 줄었다. 현대차와 기아 등 해외 기종은 모두 제외됐다.



미 재무부는 17일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로 테슬라, 쉐보레, 크라이슬러, 포드, 지프, 링컨, 캐딜락 등 7개 브랜드의 22개 차종을 확정해 발표했다. 테슬라의 경우 모델 3과 Y 등이, 쉐보레는 볼트, 실버라도 등 4개 차종이 모두 7500달

리 지원금 대상으로 포함됐다. 모두 미국 제조사 차량이다. 한국, 일본, 독일의 제조사 차량은 모두 빠졌다.

IRA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형태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31일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면 3750달러,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40% 이상 사용하면 3750달러를 지급하는 추가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은 당시 FTA 체결국에서 가공한 양극재·음극재를 사용해도 보조금 요건을 충족도록 해 한국 배터리 제조사의 피해는 최소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2030년까지 신규 판매 자동차의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및 공공 부문 전기차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우버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가 동참했다. 백악관은 "미국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인베스트 아메리카' 대책의 일환"이라며 "IRA의 전기차 보조금 조항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지난 14일까지 모두 200개 이상의 기업이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금 신청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치있는 美, 중비밀경찰서 연루 중국계 2명 기소

미국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향우회 간판을 내걸고 중국 해외 도피 사범 송환 작전 등에 협력한 중국계 남성 2명이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돼 기소됐다.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과 관련해 미국이 관련자를 형사 기소한 건 처음이다.



브라운 피스 뉴욕 브루클린 연방검사는 17일 기자회견을 하고 "외교적 승인 없이 중국 경찰 작전을 수행한 혐의로 루젠왕(61세)과 천진핑(59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루젠왕과 천진핑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내 중국 푸젠성 출신 향우회인 '창려공회' 회장과 사무총장을 각각 맡고 있다. 루젠왕은 브루클린에 살고 있으며 중국에도 거주지를 두고 있다. 천진핑은 맨해튼에 거주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들이 중국 정부의 요원으로 활동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창려공회는 2013년 푸젠성 출신들의 교류 장

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설립된 향우회다. 2016년에는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 6층 건물 사무실도 임대했다. FBI와 검찰은 지난해 초부터 미국 내 중국 반체제 인사를 식별·추적·위협하기 위한 비밀경찰서로 이곳을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스 검사는 "건물 한 층 전체에 신고되지 않은 중국 공안 경찰서가 있었다. 이 비밀경찰서는 사악한 용도로 사용됐다"며 "중국 공안 당국자는 (이들에게)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중국계 민주화 운동가 소재를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해당 피해자는 중국 민주화 운동가로 뉴욕주 의회 후보의 고문으로 일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는 중국 민주화에 대한 연설 이후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로 부터 위협적인 전화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루젠왕은 지난해 중국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기 전에도 미국에서 중국 정부의 반체제 인사 위협 활동을 지원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에는 중국을 탈출한 인사를 되돌려 보내기 위한 가족 협박 작업에도 동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美엘라베마 총격 사망 18세 소년, 여동생 구하고 목숨 잃어

지난 15일 미국 남부 앨라배마주 작은 마을에서 열린 생일파티 도중 발생한 총격 사건 희생자 중 한 명이 여동생의 목숨을 구하다 사망한 필스타비우스 도우넬(18)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BBC가 보도했다.



필은 사건 당일 총격이 발생하자 파티 주인공인 자신의 여동생 알렉시스 도우넬(16)을 바닥 쪽으로 밀쳐냈다. 누군가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동생에게 다가가 그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낸 것이다. 알렉시스는 "나는 다행히 행사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며 "다시 현장에 돌아갔을 때 총에 맞은 필을 발견했고 그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내가 안고 있는 동안 눈을 뜨고 눈썹을 움직였다"고 BBC에 전했다.

그들의 어머니인 라도나 앨런에 따르면 3남매 중 장남인 필은 곧 장학금을 받고 재스빌 주립대에 진학할 예정이었다. 필은 지역에서 축구선수로 유명한 학생이었다고 한다. 앨런은 "아들은 모든 면에서 나를 자랑스럽게 했다"며 "다음 달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이었지만 이제 묘지에 가서 아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앨라베마 총격 사건으로 10대 4명이 숨지고 약 30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한 명인 19세 마르시아 폴린스는 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대학 축구 대표팀 선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23세 코빈 홀스턴은 총격 소식을 듣고 가족이 안전한 지 확인하기 위해 파티장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고 그의 가족은 전했다. 경찰은 아직까지 사

건 용의자나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다.

中, 소비 회복에 힘입어 1분기 성장률 4.5%

올해 1분기 중국 경제가 위드 코로나 전환에 힘입어 4.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제의 핵심축인 소비가 빠르게 살아나면서 1년 만에 4%대 성장세를 회복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8일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28조4997억 위안(5460조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5.0% 안팎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로이터통신이 최근 조사한 시장 전망치(4.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중국 GDP 성장률은 2021년 1분기 18.3%로 정점을 찍은 뒤 둔화세를 보이다 경제 도시 상하이 봉쇄 여파로 지난해 2분기엔 0.4%까지 급락했다. 이어 3분기 3.9%, 4분기 2.9% 등 계속 주춤했다. 결국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정부 목표(5.5% 안팎)에 한참 못 미치는 3.0%에 그쳤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코로나 봉쇄에 반대하는 백지 시위가 대대적으로 벌어진 뒤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지만 갑작스러운 방역 완화에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연말까지 경기 반등 효과는 크지 않았다.

올해 들어 중국 경제가 시장 전망보다 빠르게 회복된 건 소비가 증가한 덕분이다. 1분기 소매 판매는 11조4922억위안(2201조원)으로 지난해 보다 5.8% 증가했다. 특히 3월 한 달 동안 10.6% 늘어 2021년 6월 이후 처음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식음료 소비액이 1조2136억 위안(233조원)으로 13.9% 늘었다. 내수 경기를 가능하게 하는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건 경제 회복의 청신호로 해석된다.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은 3년간 지속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이후 처음 나온 경제 성적표라는 의미가 있다. 푸링후이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분기 경제 성장 속도는 1분기보다 눈에 띄게 빨라질 것"이라며 "성장을 이끄는 소비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투자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투자 증가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고 산업 활동도 상대적으로 침체된 모습을 보여 성장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향후 5년간 세계 경제 성장에 가장 많이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 자료를 토대로 2028년까지 주요 국가들이 세계 GDP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 중국 22.6%, 인도 12.9%, 미국 11.3%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예수님처럼, 다양한 리더십으로 ...

(1면에서 계속)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의도에 휘말려 들지 않으신다. 감정이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분위기를 통제하고 감정을 가라앉히는 행동을 하신다.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고조된 분위기로 예수님의 입술만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의도적으

로 침착하고 차분하며 질서 있게 행동하는 리더십을 보이신다. 신속한 대처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리더십 형태를 쉽게 좋아하지 않는다. 상대를 자극하기 위해 더욱 격렬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차분한 행동으로 좌중의 분위기를 환기시킨 후 바로 다음 형태의 리더십을 보이신다.

우리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주도형(D) 리더십

이번에는 땅에서 일어나며 권위있는 자세와 목소리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다. 안정적인 모습에서 순식간에 주도하는 모습의 리더십으로 변한 모습을 보이신다. 무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못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을 과소평가하지도 반박하지도 않으시면서,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신다. 그 후에 다시 땅에 앉아 글을 쓰신다.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신중형(C) 리더십

이런 행동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는 신중형 리더의 모습이다. 사람들의 흥분은 가라앉히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기준에 비춰보도록 만드는 모습이었다. 무리가 예수님의 행동에 따라 분위기를 바꾸고 점차 해산하자, 예수님께서서는 끌려온 여인을 다정하게 대하신다.

상처입은 영혼을 감싸는 사교형(I) 리더십

예수님께서서는 "여자여"하고 부르시면서 끌려온 여인을 위로하시는데, 이 표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부른 호칭과 동일하다.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제시하신 신중하고 비판적인 기준으로 여인을 평가하시지 않고, 상처입은 한 영혼을 위로하시는 목자의 모습을 보이신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사건에서 순간 순간 리더십의 유형을 바꾸어 가며 행동하시며 대적하는 사람들과 대중, 상처입은 한 영혼을 동시에 돌보신다. 모든 유형의 리더십을 우리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없었지만, 다양한 상황과 사건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오늘날의 교회 속에, 자신에게 약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보강하는 노력을 기하는 게기가 되어야 한다!

D. 칭의 (Justification)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거둬나가 하시어 새 생명을 주신다 (중생). 중생함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회개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회개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의롭다고 칭해주신다.”

1. 칭의는 하나님께서 중생한 자들에게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법적 선언포이다 (Legal declaration by God).

성경에 “칭의”는 헬라어 “δικαιώω” “의롭다고 선언하다” (to declare righteous) 의미이다. “의롭게 만들다”는 의미가 아니다. (눅 7:29)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이곳에 사용된 용어는 “εδικαιώσαν”이며 이것은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declared as righteous). 본문에서 백성들과 세리들이 하나님을 의롭게 만들 수가 없다. 단지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선포하는 일이다.

칭의는 믿는 성도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롬 3:20, 26, 28; 5:1; 8:30; 10:4, 10; 갈 2:16; 3:24). 특별히 로마서 4:5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적으로 의롭게 만드는 것(God makes the ungodly to be righteous)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은혜가 칭의이다. 그들의 믿음도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칭의의 은혜를 받아드리는 방편 (means) 일 뿐이다.

그리고 칭의의 반대말은 정죄 (condemnation)이다. 둘다 법적 선언이다 (a legal declaration). 구약에도 “칭의”의 개념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신 25:1)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관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재판장들이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 수 없다. 단지 그들이 하는 것은 “의롭다, 혹은 죄가 있다”라고 재판장은 선언하는 것뿐이다 (출 23:7; 왕상 8:32' 대하 6:23).

분명히 성경의 칭의의 개념은 내면적인 문제 (의롭게 만드는 것)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성을 말한다.

존 매리 (John Murray) 교수는 “구속의 성취와 적용 (Redemption Accomplished and Applied) 에서 중생과 칭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다. “중생과 칭의의 관계는 마치 외과 의사

와 판사의 역할의 차이이다. 암을 제거할 때 외과 의사는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을 하지만, 판사는 외적으로 판결을 내린다. 복음의 순수성은 성화와 칭의의 차이를 잘 이해할때에 복음의 순수성이 유지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복음을 변질 시킨다.”

2. 칭의는 우리의 죄의 용서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다.

(롬 4:25)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쫓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나 죄 용서함으로 끝이 나면 도덕적으로 중립지대에 존재한다. 그런데 칭의의 은혜는 중생한 자를 중립지대에 놓아

가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의롭다고 “의로운 자로 선언”하신다.

칭의의 근거가 되는 우리의 믿음이 공로가 될 수 없다. (갈 2: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성경은 우리의 칭의가 “우리의 믿음 때문에 (Because of faith 혹은 On account of faith)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성경은 항상 “믿음으로” (By faith) 혹은 “믿음을 통하

3:1),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시 103:13-14),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마 6:32),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다 (마 7:11).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롬 8:14).

그리고 자녀 됨의 특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신다 (히 12:5-6; 잠 3:11-12). (히 12:5-6) “또 아들들에게 관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징계는 모두 우리를 위함이다. (롬 8: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

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라고 칭했다. 이 말은 “ἁγιασμένοις” (having been sanctified) 명사형 완료 수동분사 (substantival perfect passive participle)으로 이것은 “완성된 과거의 행동과 계속되는 결과를 모두 의미”한다. 이것은 성도들은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과거에 중생을 받을 때에), 그리고 중생함을 받고 난 후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자들이다.

2. 성화는 이 세상에서 계속 자라간다. (롬 6:19)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성도들이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점점 죄로 향해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성화를 위해 의를 향하여 점점 나아간다. 그리고 빌 3:13-14에서 성화가 이 세상에서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거룩함을 향하여 점차적으로 나아감을 말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있어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족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한다. (벧전 1:15)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3. 성화는 이 세상에서 계속되지만 완성되지 못하며, 우리가 죽을 때에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성된다.

4. 완전주의 (perfectionism)는 잘못이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주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요한일서 3:9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으로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근거로 해서 중생한 자는 죄를 범치 아니한다고 주장한다는 그룹들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들을 완전주의자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 (ὁ ἀμαρτάνων)” 라는 헬라어 표현은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 (not to continue sinning)” 뜻이다. 현재형 동사 (능동태 부정사)로서 지속적, 습관적인 행동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중생한 자는 “계속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의미이다.

KHL0206@gmail.com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20)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신다. 칭의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칭의를 이렇게 설명한다.

(롬 3:21-22),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고

(롬 4:3; 창 15:6을 인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울이 롬 5:19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확증이 됨을 말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전가 (imputation)는 세개의 경우가 있다.

- (1) 아담의 죄가 그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된다.
- (2)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죄값을 치루셨다. (고전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 (3) 그리스도의 의가 성도들에게 전

여” (Through faith)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우리의 믿음은 칭의의 방편 혹은 수단 (instrument)이 되며 결코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칭의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다.

E. 양자됨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됨)

중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칭의를 통해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주시고, 그리고 양자 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에 가족이 되게 하신다.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 3:26)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 4:4-7)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با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요일

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

(마 5: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F. 성화 (Sanctification):

소요리 문답 35문에 의하면, “성화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로서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 (Whole man)이 새로 위치게 되고, 점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되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다.”

칭의와 성화의 차이는? 칭의는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지위 (법적 위치)를 말하지만, 성화는 성도들의 내적인 상태를 말한다. 칭의는 단회적이지만 (once for all time), 성화는 이 세상에서 지속적이다 (continuous throughout life). 칭의는 전적 하나님의 일이지만, 성화는 우리가 협력한다. 칭의는 이 세상에서 완전하지만 (perfect in this life), 성화는 이 세상에서 완전하지 못한다. 칭의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지만, 성화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1. 성화는 성도들이 거듭남 (중생)의 은혜를 입을 때에 이미 시작이 된다. (행 20:32)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라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850)423-9700 Cel: (213)703-996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다민족 교회</p> <p>담임목사: 홍귀표</p> <p>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찬양집회: 매주(목)오후 4:00-7:00</p> <p>Tel: (773)821-1112 estross@yahoo.com 6354 W. TOLUHY Ave. Chicago, IL 60646</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인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3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p>	<p>벨렐교회</p> <p>담임목사: 백신중</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찬양) 오후 1:45 2부예배: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p> <p>담임목사: 장성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청소년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ingham, MA 01948</p>
<p>새생명안인교회</p> <p>담임목사: 정성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후 7:00(목) 새벽 예배: 오전 6:00(화/목/토) 구역 예배: 각 구역별로 한국 학 교: 오전 10:20(주일)</p> <p>Tel: (850)423-9700 Cel: (213)703-9961 5502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p>	<p>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p> <p>담임목사: 차용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매일 오전 6:00</p> <p>Tel: (703)881-9235 www.koreanp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p>	<p>일칸사 제자들교회</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절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820-9049, www.jeje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열린문교회</p> <p>담임목사: 유재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영생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백은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킬린은누리교회</p> <p>담임목사: 김성한</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주일 4부예배: 오후 8:00 토요찬양예배: 오후 3:00 세백기도회: 오전 5:30(화-금)</p> <p>Tel: (254)635-1842(H), (254)501-4933(C) 1000 E. Veale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8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703)841-4447, www.mpcso.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정호</p> <p>주일 영양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시 수요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세백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536-6675, www.tacomapc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나의 확신은 전염됩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행복 중에 하나는 겨울 우기가 끝나고 봄이 시작되면서 4월에 들판과 산 중턱에 아름답게 활짝 피어 오는 야생화와 파피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겨울 우기인 12월부터 2월까지 비가 많이 내리면 야생화와 파피꽃은 장

관을 이룹니다. 2022년 11월부터 3개월간 31회의 겨울 폭풍이 몰아쳐서 폭우와 폭설이 내려 지난 3년간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었던 캘리포니아 주를 해갈해 주었습니다. 산에는 70년 만에 폭설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내린 폭우는 캘리

포니아 주를 예외적 가뭄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들판에 있는 야생화들이 화려한 꽃들을 피어오르도록 해주었습니다. 우주만물의 정원사가 되신 하나님이 이번에 가꾸신 파피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야생 파

피꽃의 절정을 누릴 수 있는 랭커스터의 앤젤롭 벨리 파피꽃 보존 지역에 갔습니다. 1,630에 이커의 대지에 펼쳐진 오렌지색의 파피꽃을 상상하며 갔는데 아직까지는 모든 들판에 파피꽃이 만개하지 않았고, 일주일 후면 들판을 오렌지 파피꽃으로 장식할 것 같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랭커스터 지역에 사시는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만개한 파피꽃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물어보니 자셋다면서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열더니 회비를 내놓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아직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과 전해주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길에 좋은 장소를 안내해 주신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방문하였더니 사모님께서 며칠 전에 야생화를 보고 오신 카리조 대평원의 사진을 보여주십니다. 캘리포니아 수십 년 동안 사시면서 처음으로 가보았는데 “왜 이제야 이곳에 왔을까?

이곳을 구경하지 못하고 죽어서 천국에 갔더라면 후회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카리조 대평원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홍보하시고 반드시 가볼 것을 적극적으로 저에게 권장하십니다. 사모님의 확신에 찬 추천에 저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 자리에서 성도님들께 일주일 후에 카리조 대평원 야생화를 구경하러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도님들은 만사를 제쳐두고 가겠다고 하면서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열더니 회비를 내놓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아직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과 전해주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길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만이 알고 있는 공간이나 성공 비법, 깨달은 지혜, 아름다운 장소, 맛있는 맛집 등을 알려주고 싶은 열정에 사로잡혀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확신을 가진 사람은 열정적이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 전하고자 하는 강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 제자들은 비겁한 자에서 담대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제자들의 확신에 찬 선포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이끌게 됩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서 회피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누리는 큰 구원의 기쁨을 혼자만 간직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확신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확신은 전염됩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넓게 전염되어야 합니다. syrchurch@gmail.com

국가기도의날 준비를 위한 지도자 초청 조찬기도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무너진 영광과 터전이 회복될 것”

국가기도의날 준비를 위한 지도자 초청 조찬기도회가 15일(토) 오전 10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있었다. 이날 송정명 목사는 “미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중심으로 사는 청교도가 세운 나라이다. 하지만 신앙의 틀들이 흔들리고 와해직전에 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미국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지도자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국민들에게 지도를 요청했다. 트루먼 대통령 때 국가기도회를 서명했으며 지난 1988년 레이건 대통령은 국가기도회날을 5월 첫째 목요일로 정하고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송 목사는 “오는 5월4일 마음을 합하여 기도함으로 미국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순영 목사(전 자마 대표)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이병구 교수(그레이스미션대학교 박사원장)가 개회 기도했으며 김수희 권사(QT페밀리 미션



국가기도의 날 기도회 준비를 위한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대표)가 성경봉독을,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 담임)가 ‘보김에서 벨엘로(삿 2:1-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성근 목사는 “죄는 쌓아두면 언젠가 터지게 되어있다”며 “죄악의 산이 쌓이면 언젠가 무너지고 우리를 덮치고 우리 자녀와 가정과 국가를 덮치게 된다. 죄는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목사는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이다. 모든 기초가 성경에 있는데 성경과 하나님을 지워버리면 미국을 미국이라 부르기 힘들

것”이라 꼬집으며 “모든 성공과 영광의 비결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무너진 영광과 터전이 회복될 것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즉 하나님 중심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이 부흥이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첫째, 하나님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둘째, 끊을 것을 끊어야 한다. 내안에 있는 가나안 세속적인 야망 등을 청산해야 한다. 셋째, 다시 재단 앞으로 나아가

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한국교회와 우리를 통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목사중창단이 특별 찬양했으며 2부 권면과 격려의 시간을 갖고, 송정명 목사(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가 환영의 말씀을, 한기형 목사(CBS TV 사장), 최학량 목사(미주예비역 군목회장), 이상명 총장(미주장신대)이 권면했다. 이어 강태광 목사(월드쉐어 USA) 진행으로 열린 3부 기도회는 국가기도의 날을 위한 기도회와 미국의 현실을 위해 이날 모인 참석자들이 뜨겁게 합심 기도했으며 샘신 목사(KACC 대표)가 ‘미국 전역의 국가기도의 날 기도회를 축복하소서’, 김영환 목사(나성순복음교회)가 ‘남가주 국가기도의 날을 풍성케 하옵소서’, 양경선 목사(KAPC 남가주 노회장)가 ‘패역한 미국이 회개하게 하소서’, 그리고 엄규서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중경회장)가 ‘미국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이정현 목사(한기총 미주총회 대표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PIM 컨퍼런스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UMC서부지역 PIM 컨퍼런스 하와이에서 열리다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목회를 위해 협력하는 기회 제공

연합감리교 서부지역 2023년 PIM(Partners in Ministry) 컨퍼런스가 지난 4월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하와이에서 열렸다. PIM은 연합감리교 서부지역 한인교회들의 동반성장을 위해 큰 교회와 작은 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의 목회자와 큰 교회의 목회자가 서로 연대를 가지고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목회를 이루기 위해 협력하는 기회와 틀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프로그램이다. 즉 한인 교회 중에서 향후 3년간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일할 큰 교회들을 선정하고, 그 숫자에 맞추어 작

은 교회들을 선발하여 1대1 결연을 통해 서로를 돕는 것이다. 파트너 A교회는 재정적, 인적 자원이 가능한 교회들로써, 작은 교회들을 도와 함께 성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널리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일에 자원으로 참여하는 교회이며 파트너 B교회는 A교회의 재정 지원을 받아 교회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하와이를 제외한 서부지역 목회자 25가정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10일(월)에 열린 컨퍼런스 개회예배는 원홍연 목사의 사회, 이영성 목사의 기도, 한의준 목사의 설교, 김웅민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11일(화) 오전 장학순 목사의 특강, 12일(수)엔 PIM 커맨드 모임을 갖기도 했다. 특별히 수요일 저녁 예배는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에서 PIM 참가 목회자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는데 이날 하와이를 방문한 캄백 연회 신임감독인 에스코베도-프랭크 감독이 설교했다. 한편 PIM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김웅민 목사, 회장: 한의준 목사(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부회장: 이창민 목사(LA 연합감리교회), 회계: 강현중 목사(토렌스 연합감리교회), 서기: 원홍연 목사(베다니 연합감리교회) <정리: 박준호 기자>



조셉 구씨, 제인 민씨

새언약학교(NCA), NCA를 빛낸 졸업생 발표

제1회 졸업생 조셉 구(변호사), 제인 민(웹트론 근무)

LA한인타운 유일의 한인 운영 사립학교인 새언약학교(New Covenant Academy, 이하 NCA 교장 제이슨 송)가 지난 17일 이 학교 1회 졸업생인 조셉 구씨와 제인 민씨를 ‘NCA를 빛낸 졸업생’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되어 내년에 개교 25주년을 맞이하는 NCA는 역사와 전통을 널리 알리고 학교 발전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서 기획한 것으로 졸업생에게는 영예, 재학생에게는 목표, 교직원에게는 자부심을 고양시키는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첫 영예를 차지한 조셉 구씨는 2003년 졸업 후 페퍼다인대에 진학하고 CPA가 됐으며 NCA로 돌아와 CFO로 일했다. 이후 법대를 거쳐 현재는 한인 사회에서 유명한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NCA와 학생, 직원, 학부모로 긴 시간동안 함께 했으며 가족 같은 환경과 특별한 멘토십 통해 많은 배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입 지원서를 준비하며 송 교장 선생님과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또 다른 주인공인 제인 민씨는 현재 결혼 후 서울에 거주

하고 있는데 졸업 후 UC샌디에고를 나와 서울대 대학원을 마치고 보스턴컨설팅그룹, 국제백신기구를 거쳐 현재는 바이오 제약사인 펩트론에 근무하고 있다. 민씨는 “학우들 간의 경쟁도 치열했고 뒤처지지 않으려 많은 노력을 했다”며 “적극적인 조언을 해준 선생님들 덕분에 자립심과 책임감,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토론 수업을 통해 배양한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영어 실력이 대학과 이후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강점으로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제이슨 송 NCA교장은 “많은 졸업생들이 한인 사회는 물론 주류 사회, 한국에서 활약을 하고 있어 모교의 이름을 빛내고 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졸업생들이 사회 곳곳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특히 졸업생들이 자신의 자녀를 입학시키는 등 학부모로 돌아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NCA스쿨은 지난 1999년에 설립했으며 초중고 과정은 물론 킨더가든 과정까지 개설돼 있는 소수 정예 사립학교로 타인종 학생은 25%이고 한인 타운에서는 국제학사과정(IB 과정)을 유일하게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기사제공: NCA>

이훈구 장로, 구미 순회 간증집회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큐티 시간 꼭 가져야”

텍사스 ‘G2G선교회’ 대표 이훈구 장로가 지난 3월22일부터 한국을 방문, 간증집회를 인도했다. 올해 초 ‘크리스천 자녀교육, 결혼을 어떻게 시켰어요?’를 출간하기도 한 이훈구 장로는 경북 구미에 소재한 구미 남교회(담임 천석길 목사), 구미 사랑의교회 (담임 안재호 목사), 새구미 교회(담임 이봉호 목사)에서 자신의 저서를 바탕으로 간증과 함께 말씀을 전했다. 이 장로는 간증 시간을 통해 “자신이 신앙을 갖게 된 배경과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 결혼을 위해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 인지를 전했다. 크리스천으로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장로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큐티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피력하며 꿈을 이루어 가는 신앙자침 열 가지를 소개 하므로 참석한 이들에게 도전하는 정신과 꿈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훈구 장로는 텍사스 남부

에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 휴스턴 남부개혁대학 및 신학 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G2G 선교회(비영리 재단)를 운영하고 있다. 이훈구 장로의 간증 설교는 <https://www.youtube.com/watch?v=Pw1-MEhm5Uw&t=1323s> 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정리: 이성자 기자>



이훈구 장로가 새구미 교회에서 간증집회를 인도하고 있다.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동원장로교회 설립 35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
 뉴욕동원장로교회(담임 박희근 목사)는 4월 23일(주일) 오후 5시 설립 35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를 드린다. 장로 취임(변윤섭)과 권사 취임(김정숙, 서미애, 편선희)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소: 21-01 124 st. College Point NY 11356
 ▲문의: 뉴욕동원장로교회 917-254-0887

별빛 광야길, 암투병 환우 위로 콘서트
 뉴욕평화교회(담임 임병남 목사) 5월 21일 주일 투병 중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콘서트를 개최한다.
 ▲문의: 임병남 목사 718-962-5131, 유태웅 목사 646-258-4161

농업선교학교 세미나
 뉴저지크리스찬 아카데미가 주최하는 농업선교학교 세미나가 5월 23일(화)-25일(목)까지 뉴저지 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 개최된다. 선교지와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자금 부족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선교 플랫폼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이다. 이미 65개국에서 양계와 농업을 통해 자급자족 선교 공동체를 세우고 활발히 사역하는 강동진 목사의 (보나프 공동체) 강의와 실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문의: 609-758-1577

5개주 미동부 한인목사회 체육대회
 워싱턴 지역 한인교역자회 주최로 5개주 미동부 한인목사회 체육대회가 5월 15일(월) 오전 9시부터 열린다. 버지니아에서 열리는 본 대회의 참가를 위해서 4월 22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종목은 축구, 배구, 족구, 계주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문의: 박영수 목사(체육분과위원장) 646-981-8434

제6회 이보고 심포지엄 “왜 아태계 역사교육이 필요한가?”

여지연 교수, “아태계 역사: 차별과 공헌”이라는 주제로 강연

제6회 이민자보호교회(이보고) 심포지엄이 “왜 아태계 역사교육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5월 4일(목) 저녁 7시에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에서 열린다. 아시아 이민 역사를 미국 공교육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왜 이것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하이브리드로 진행된다. 주제강연은 노스웨스턴대 여지연 교수(Founding Faculty of Asian American Studies Program)가 맡았다. 여지연 교수는 “아태계 역사: 차별과 공헌”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또 정책을 통과시키는 일을 담당할 아태계 출신 정치인인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과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이 발제를 한다. 이보고는 “미국 사회는 물론 아시아 이민자 자신들조차도 아시아 태평양계(AAPI) 이민 역사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 아시아인 혐오 범죄와 차별



을 예방하기 위해, 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그리고 모범적 소수(Model Minority)라는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립학교에서 아시아인 이민 역사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로부터 이번 심포지엄은 시작되었다”라고 소개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엘머스트, 서니사이드, 프레쉬메도우 지역 새벽 연합예배를 퀸즈한인교회에서 드린 후 지역대표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2023 뉴욕지역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현장

뉴욕교협, 16개 지역에서 각각 새벽연합예배 진행

부활절을 맞아 4월 9일(주일) 뉴욕 일원 교회들은 새벽 및 주일 예배를 통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했다. 특히 49회기 뉴욕교협은 오전 6시에 16개 지역에서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를 드렸다. 엘머스트, 서니사이드, 프레쉬메도우 지역 교회들이 모인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는 인도 이창종 목사, 기도 조동현 장로, 말씀봉독 이춘범 장로, 특송 김영환 전도사, 말씀 전희수 목사, 헌금 성음크로마하프연주단, 헌금기도 백달영 장로, 광고 권케더린 목사, 축도 김바나바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희수 목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한복음 20:1-8, 29)”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슬픔과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평강이 오며, 우리 영이 살아나며, 잃어버린 믿음이 회복된다”고 강조했다. 베이사이드지역은 뉴욕베데스다교회(담임 김원기 목사)에서 인도 박태규 목사, 기도 손성대 장로, 말씀 유상열 목사, 헌금기도 이의창 장로, 축도 한재홍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상열 목사는 “부활을 믿는 자의 삶(고린도후서 1:8-1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유목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바라보며 마지막 때 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둘러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전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손경민 목사가 찬양집회를 인도하고 있다

손경민 목사, 미주순회집회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은혜”

미주 한기부 주최, 과테말라 선교 모금 찬양 집회로 열려

손경민 목사 미주순회집회가 4월 14일 뉴저지, 15일 뉴욕을 시작으로 필라,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미동부에서 연속으로 열렸다. 뉴욕과 뉴저지 집회는 미주 한기부에서 주최를 했다. 뉴욕은 15일(토) 오후 5시 하크네시교회에서, 뉴저지는 14일(금) 오후 5시 주님의은혜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드러진 헌금은 6월 4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한기부 과테말라 선교를 위해 사용된다. 손경민 목사는 집회를 통해 ‘은혜’, ‘행복’, ‘주님의 부르심’, ‘여정’ 등을 김정희 사모와 함께 찬양했다. 또 이기영 전도사는 색소폰 연

주를 통해 은혜를 더했다. 손경민 목사는 ‘은혜’ 찬양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보내온 여러 간증들을 소개했다.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제때 병이 발견되어 치료받은 것도 은혜, 아버지가 제왕암 수술을 받고 지금 밖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 의지할 분이 계시고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기에 너무 감사하며 은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실 것이 믿어지고 성경에 쓰여 있으니 두렵지 않으며 은혜라는 고백을 소개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선우권 목사, 뉴욕과 뉴저지에서 성회와 세미나 인도

뉴욕 여성집회, 미주 동부 지역 목회자 세미나 개최

선우권 목사가 팬데믹 후 처음으로 뉴욕과 뉴저지에서 성회와 세미나 등 집회를 인도했다. 선우권 목사는 LA총신교회에서 10년 동안 한인이민목회를 했으며 한국으로 돌아가 분당 남서울교회 3년, 한국 수지제자교회 11년, 세종 온누리교회 11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다.

선우권 목사는 살롱교회(담임 양미림 목사)에서 뉴욕 여성집회를 인도했다. 4월 13일(목) 저녁집회에 이어, 19일(수)

오후 2시와 오후 7시 30분에 집회가 이어졌다. 14일(금)부터 3일간은 뉴저지소망교회에서 성회를 인도했으며, 17일(월) 오전에는 뉴저지영광장로교회(담임 정광희 목사)에서 미주 동부지역 목회자 세미나를 열고 찬양, 전도, 기도, 설교 등 목회 전반에 대해 강의를 했다. 이후 남가주에서 집회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퀸즈장로교회, 부활절 칸타타 “부활, 마지막 시간, 영원한 승리”

뮤지컬 형식, 예수그리스도 부활의 참된 의미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4월 9일(주일) 오후 4시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 마지막 시간, 영원한 승리”라는 주제로 부활절 축하 찬양 예배를 드렸다.

1부 예배는 최원일 장로의 사회, 기도 오성섭 집사, “마지막 시간, 영원한 승리(고린도전서 15:24-26)”를 주제로 김성국 목사가 설교했다. 김 목사는 “우리의 죽음은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신으로 다시 옷을 입는 그날이며 마지막 죽음이 주님 앞에 패배했기 때문에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순절 시상과 광고 후 2부 찬양제로 순서가 이어졌다. 음악감독 강혜영 집사의 지휘, 작곡 오병희, 진행 최원일 장로, 오르간 송소영, 피아노 최미희,

바이올린 오재혁, 퀸즈장로교회 연합찬양대로 구성된 이번 칸타타는 이전의 방식과는 달리 그루터기 청년부원들의 연기를 포함한 뮤지컬 형식으로 진행됐다. 처음으로 교회에 전도되어 출석해서 부활절의 의미를 잘 모르는 주인공 예술자매가 부활절 교회에 출석하여 전도자 수진 자매의 인도를 통해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그 가운데 보여진 예수님의 잡하심,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의 성경적 장면을 바라보며 부활절의 참된 의미를 알아가는 이야기로 구성됐으며 연기자들의 연기와 합창이 어우러져 “인생의 마지막 카드는 죽음이 아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부활의 의미를 전했다.

(김재상 기자)



부활절 칸타타 “부활”



2019년 열린문 컨퍼런스 당시 모습

2023 열린문 컨퍼런스 주제는 “전통적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이민 교회의 변화에 대한 고민, 상호의존 교회 케이스 스터디

버지니아에 위치한 열린문장로교회(담임 김용훈 목사)가 언어권과 영어권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북미의 동역을 함께 꿈꾸는 열린문 컨퍼런스를 5월 8일(월)부터 10일(수)까지 개최한다. 이 컨퍼런스는 언어권 공동체와 영어권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며 의존하는 ‘상호의존교회(Interdependent Church) 모델’을 통해 사례를 나누고 다음 세대와의 사역과 비전을 나누는 컨퍼런스이다. 올해 2023 열린문 컨퍼런스(ODC, Open Door Conference 2023)는 그동안 열린문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리더들에게도 북미 이민교회의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된다. ‘전통적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From Traditional Church to Missional Church)’로 라는 주

제를 따라 이민 교회의 변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평신도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하도록 구성되었다. 강사는 김용훈 목사, 차태욱 교수(Peter Cha, 트리니티신학교 교수), David Chang 목사(열린문장로교회 영어권교회 리더 목사), John Cha 목사(열린문장로교회 영어권교회 부목사), 김대영 목사(헬로쉽교회 담임, MD) 등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김용훈 목사와 영어권 John Cha 목사의 상호의존 교회 케이스 스터디와 트리니티 신학교 피터차 교수의 이민 교회의 큰 그림과 디아스포라 교회에 대한 제안, 그리고 전통적 교회의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에 대한 개교회의 고유한 변화를 도전하게 된다.

(정리: 김재상 기자)



살롱교회에서 말씀 성회 후 기념촬영을 했다

피종진 목사 4월 부흥성회

1(토) 오후 국제선학교(T.S.) (이사장 강영준) 010-9260-1091 K.C Enterprise Blessing
 2(주) 저녁 공주 팔복교회 (최명자 목사) 010-5353-7756
 3(월) 저녁 서울 에바다교회 (정군자 목사) 010-3403-9190 영평회 1배
 4(화) 오전 한국 FUN 목회교회 (이정재 목사) 주최 : 한국기독교 영평회 부흥사 연구원 (대표회장 배용선 목사) (032) 421-4560
 6(목) 오후 서울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 교육관 주최 : 한미연합부흥사협의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기범 목사) 010-2238-3999
 7(금) 오전 서울 강남반석교회 (강사량 목사) 010-8331-3431
 9(주) 새벽 오산시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오산시 문화회관 주최 : 오산시 기독교 연합회 (대표회장 신상철 목사) 010-7625-0747
 9(주) 오후 김포 강림교회 (조경숙 목사) 010-8222-1992 부활절 연합예배
 10(월) 오후 대한애국교회 (함희 동서장로회 회장 신영호 목사) 경기도 서울 동원교회 (배정철 목사)
 10(월)~12(수) 청주 안디옥교회 (이정성 목사) 010-8441-0196
 13(목) 저녁 성남 주영광교회 (전옥란 목사) 010-2445-1691
 주최 : 대한애국교회 장로회총회(개혁) (대표총회장 남보석 목사)

제 229차 해외성회 (229th Overseas Assembly)
 16(주일) 미국 (USA) 하와이 VISION 교회 (정형준 목사)
 16(주일)~20(목) “제6회 세계여성지도자 하와이 컨퍼런스 6th World Women Leaders Conference in Hawaii”
 장소 : 미국 (USA) 하와이 와이키키 리조트 및 GBS 하와이 방송 rostrum, 현지교회 주최 : 기독교여성신문사 (회장 최금숙 교수, 발행인 대표 김화숙 목사)
 협찬 : 미주 기독교방송, GBS 하와이 방송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공동대표장 이기도 목사 최기성 목사)

23(주) 오전 서울 열린교회 (김희준 목사) 010-8633-0190
 24(월) 오전 KAICAM(USA) 안수식 (연합회장 김승욱 목사) 분당할렐루야교회 (02) 3673-1323~6
 24(월) 오후 서울 강남순종교회 (오승준 목사) 010-3942-8434
 27(목) 오후 오산리 최자실기원 금식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02) 6181-9282
 주최 : 작은자 섬김선교회 (대표회장 양우식 목사) 010-8839-8899
 28(금) 오전 서울 강남반석기도원 (강사량 목사) 010-8331-3431

대한애국교장로회 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남가주 교계, 각 지역에서 부활절 감사예배 드려

“여인들이 보았던 빈 무덤은 인류 재창조 역사의 시작이고 증거”



OC 교계연합 부활절 특별새벽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남가주지역 교계 부활절 예배가 부활절인 9일(주일) 남가주 각 지역에서 열렸다.

△ 소스몰 1층 계단식 야외 극장에서 열린 오픈지카운티 교계연합 부활절 특별새벽예배는 추석근 목사(OC교협 총무, 선한뜻교회) 사회와 이원석 목사(OC목사회 회장, 하사랑교회) 찬양인도로 시작 돼 박재만 목사(OC교협 부회장, 미러클포인트교회)가 대표기도 했으며 은혜한인교회 2부성가대가 특별찬양, 그리고 신용 집사(OC전도회연합회 회장)가 성경봉독 했다. 이어 심상은 목사(OC교협회장, 갈보리선교교회)가 ‘부활 신앙으로 다시 살아나라(고전 15:12-2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지경 집사(은혜한인교회)가 특송했다. 이날 신원규 목사(OC교협이사장, 좋은마을교회), 한기홍 목사(OC교협 증경회장, 은혜한인교회), 조봉남 장로(OC한인회 회장)가 부활절 특별 축사를 전한 뒤 민경엽 목사(OC교협 증경회장, 나침반교회) 축도로 마쳤다.

△ 아름다운교회(담임 고승희 목사)에서 열린 동부한인교

회협의회(회장 송재호 목사) 주최 부활절연합예배는 ‘예수 부활하셨네’로 열렸다. 연합예배는 박선호 목사(늘푸른교회 담임, 협의회 부회장)의 인도로 기원과 선포,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회 담임)의 대표기도, 송재호 목사(할렐루야한인교회 담임, 협의회회장)의 성경봉독, 동부지역 연합성가대의 특송, 우영화 목사(동부사랑의교회 담임)의 설교, 아름다운교회 남성중창단의 봉헌특송, 구자민 목사(유니온교회 담임)의 봉헌기도 그리고 권혁빈 목사(씨드교회 담임)의 축도의 순서로 드려졌다.

△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는 부활절을 맞아 기쁜우리교회와 예배당을 함께 사용하는 영어권 교회인 글렌데일장로교회(GPC, Glendale Presbyterian Church), 알미니안 교회(Branch of Righteousness Church), 아랍교회(Arabic Christian Community Church) 성도들과 함께 부활절 다민족연합예배를 드렸다. 다민족 연합찬양대의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는 영어, 한국어, 알미니안어, 아랍어 등 4개 언어로 찬양하는

큰 감동의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기쁜우리교회 찬양대는 특별찬양, 봉헌찬양, 폐회 찬양을 한국어로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부활절 설교는 누가복음 24장 1-12절을 본문으로 네 교회의 목회자가 4개 언어로 전했으며, 축도 역시 네 명의 목회자가 4개 언어로 했다. 이날 ‘빈 무덤에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김경진 목사는 “본문에서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고 근심하고 있을



나성한미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 홍충수 담임목사 취임식을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나성한미교회 창립 40주년 감사예배 및 제7대 담임목사 취임식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

나성한미교회는 지난 9일(주일) 창립 40주년 감사예배 및 제7대 홍충수 담임목사 취임식을 본당에서 가졌다. 1부 예배에서 류재근 장로가 기도를 한 후 홍충수 목사가 ‘예수 다시 사셨네’(고전 15:12-1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홍 목사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바란다”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길 바란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한다. 우리는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종교이다. 부활의 소망을 갖는 이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지만 무덤에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사랑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

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의미이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생명이 없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 인줄 믿는다. △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본질이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음을 믿게 되길 바란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다. 따라서 부활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각 개 교회마다 부활절 특별감사예배를 통해 사망을 이기고 새 생명을 선포하신 주님의 부활을 전하며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박준호 기자>

이어 2부 행사에서는 창립 40주년 감사예배 및 제7대 담임목사 홍충수 목사 취임식을 가졌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기사판

제8회 가정선교세미나

미주가정선교회(대표 이재근 목사)가 주최하는 제8회 가정선교세미나가 생수의강선교교회(담임 최형규 목사)에서 5월6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최된다. 참가비는 성인 부부는 50달러이며 목회자부와 싱글들은 30달러이다. 강사는 본선교회 대표 이재근 목사이다

▲ 문의: (562)714-0691

사랑의빛선교교회 창립30주년 감사의 밤 및 기념예배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윤대혁 목사) 창립30주년 감사의 밤이 21일(금)부터 22일(토)까지 오후 7시30분에 갖는다. 강사는 21일(금) 김재문 원로목사, 22일(토) 윤대혁 담임목사이다. 또한 23일(주일) 예배시간에는 창립30주년 기념예배를 갖는다.

▲ 문의: (626)744-9191

새생명오아시스교회 창립 17주년 기념부흥집회

새생명오아시스교회(담임 김일형 목사)는 17주년 기념 부흥집회를 4월 21일(금)부터 23일(주일)까지 열린다. 이번 부흥집회의 강사는 장학일 목사(서울예수마음교회 담임, 밴드목회연구원장)이며 일정은 21일(금) 오후 7시30분, 22일(토) 오전 6시20분, 오후 7시, 23일(주일) 1-3부예배이다. 또한 23일(주일) 오후 2시에는 목자특강을 갖게된다.

▲ 문의: (323)730-7000

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 창립 45주년 기념예배

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담임 정상용 목사) 창립 45주년 기념예배가 23일(주일) 예배시간에 갖는다.

▲ 문의: (858)279-9191

제28기 제자훈련 지도자세미나

국제제자훈련원 주최 제28기 제자훈련 지도자세미나가 24일(월)부터 29일(토)까지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714)635-3000

샌디에고갈보리장로교회 부흥회

샌디에고갈보리장로교회(담임 김도일 목사)는 에스겔선교회 대표 김동호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부흥회를 28일(금)부터 30일(주일)까지 갖는다.

▲ 문의: (858)278-3210



센터메디컬그룹 ‘사랑의 점심식사’ 행사 가져

센터메디컬그룹이 13일 LA 코리아타운 중앙루터교회에서 열린 ‘사랑의 점심 식사’ 행사에서 푸짐한 선물이 담긴 구디백 220개를 후원하고 시니어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며 봉사했다. ‘사랑의 점심 식사’는

방주교회에서 매달 주최하는 행사로 이날 도시락은 남가주 충청향우회에서 제공했다. 센터메디컬그룹은 5월 행사 때도 참여해 도시락을 나눠주게 된다. <기사제공: 센터메디컬그룹>



유니온교회 6대 담임목사 취임식이 미주성경교회 관제실에서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사진 우측위 뒤편은 이날 취임한 구자민 담임목사 부부

유니온교회 제6대 담임 구자민 목사 취임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길을 여는 안내자 될 것”

유니온교회 제6대 구자민 담임목사 취임식이 16일(주일) 오후 4시에 열렸다.

구자민 목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가르쳐주신 것은 목회기술이 아니라 사랑의 법이었다. 담임목사로서 △ 유니온 공동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도록 노력하겠다. △ 유니온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랑하도록 힘쓰겠다. 40년 역사를 존중하고 사랑하도록 힘쓰겠다. △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목회하겠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길을 여는 안내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6대 담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치리목사 윤석형 목사(전 총회장, 산샘교회) 사회와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취임식은 한상훈 장로(남서부지방회 장로부회장, 유니온 교회)가 기도했으며 유원선 목사(남서부 지방회 서기, 오픈지중양교회)가 성경봉독 후 신용석 목사(남서부지방회 회장, 로고스라이프교회)가 ‘교회여 일어나라(사 60: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신용석 목사는 “유니온교회가 담임목사 취임

식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함께 하나 되어 일어나기를 축원한다”며 “유니온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되고 빛을 발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 하여 허다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목사 소개가 있었으며 지방회장이 문답과 서약, 선포를 했다. 이날 이대우 목사(총회장, 필라나잇교회)의 영상 축사와 김기동 목사(세리토스총만교회)의 축사가 있었으며 김병호 목사(필그림교회) 안중기 목사(임마누엘헬로스교회)가 목사와 성도들에게 각각 권면했다. 이날 예배는 이정근 본교회 원로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구자민 목사는 서울신대학 교에서 학부와 목회학석사, 풀러신학교에서 기독교상담학 석사와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인천 영음성결교회에서 전도사, LA성문교회에서 행정목사, 동양선교교회 부목사를 역임했으며 포틀랜드성결교회에서 2013년부터 담임목사로 사역했다. 가족사항으로는 부인 구승란 사모, 구분영, 구분우 두 아들이 있다. <박준호 기자>

미주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 “미주한인교회사” 발행

10명으로 구성된 편찬위원회와 86명의 저자로 집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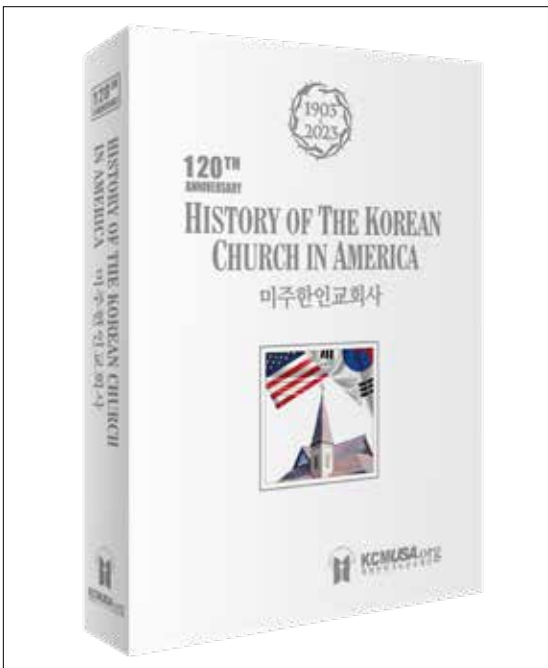
창립 20주년을 맞은 재미한인 기독교재단(이하 KCMUSA 이사장 박희민 목사)은 미주한인 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한인 이민 교회사를 총망라한 ‘미주한인교회사’를 2023년 부활절을 맞아 출간하고 오는 5월 9일(화) 오전 11시 옥스퍼드팔레스트 호텔에서 출판 감사예배를 드린다.

KCMUSA는 미주 이민 120주년을 맞은 한인교회들과 한인 크리스천들의 소중한 신앙 역사를 전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미주한인교회사” 창간 준비에 착수, 2022년 1월 미주한인교회사 편찬위원회(발행인 박희민 목사, 편찬위원장 조명한 목사, 편찬위원장 조명한 목사)를 발족하고, 열 명의 목회자를 출판자문위원으로

위촉, 편찬작업을 시작했다. 출판자문위원은 김찬희 박사(클레어몬트신학대학 명예교수), 남중성 목사(세계복음선교연합회 전 총회장), 박동건 목사(CRC 전 한인코디네이터), 신원규 목사(미주복음주의장로회 전 총회장), 심상은 목사(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현 부총회장), 오세훈 목사(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전 총회장), 이상명 목사(미주장신대 총장), 이상복 목사(미주성결교회 전 총회장), 이승종 목사(KWMC 대표회장), 이창민 목사(LA연합감리교회 담임)이다.

‘미주한인교회사’의 저자는 교회사 전문학자와 각 분야 전문 목회자, 50개 주 최초 교회 목회자, 교단 관계자 등 총 86

명이다. ‘미주한인교회사’는 본문이 총 872페이지이며, 수록된 사진은 총 1,008장이다. 페이지가 많지만 단행본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두껍지 않도록 70하이프리 종이에 인쇄하고, 표지를 양장본(Hard Cover)으로 만들었다. 한국 출판출판사가 제작한 미주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 ‘미주한인교회사’는 미국 달러로는 55불이며, 두 권 이상을 구매하



는 경우 할인이 된다. 자세한 것은 KCMUSA 미주한인교회사 편집부 (213)365-9188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KCMUSA>

부활의 계절

오, 주님이 이루셨도다



김희승 집사(시인)

오, 주님이 이루셨도다.
슬픔을 환희로
절망을 희망으로
치욕을 영광으로
죄악을 용서로

오, 주님이 이루셨도다.
죽음을 생명으로
원한을 화합으로
혼돈을 질서로
소멸을 소생으로

오, 주님이 이루셨도다
은혜로 부활을
부활로 사랑을
사랑으로 진리를
진리로 창조를

무덤에서 반전된
승리의 소식,

밤 새워 주시하던
우주의 거민들,
일제히 터지는 환희의 송가,

절망과 슬픔,
눈물로 뒤범벅 된
어둠이 마르고
마침내 다가 온 여명.

어두운 길을 더듬어
주의 무덤 가
젖은 눈에 어른 거린
주의 천사가 말했네.

주는 여기 계시지 않아요.
살아 나셨어요.

주님이 살아 나셨다고?
오, 무슨 말인가요?

별에서 별로
메아리치는 부활의 합창.
성운에서 성운으로
울려퍼지는 승리의 노래.

부활의 기적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부활하셨다.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

그 때, 그 날
부활의 아침,

오늘도 내일도
내 마음에 살아날

부활의 기쁨
부활의 은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사랑

오, 주님이 이루셨도다.



선교 유적 '탐동 양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충북추진위 이달 초 출범, 유네스코 등재 체비 첫걸음

국내 8개 도시 선교 유적지
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최근 전국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 선교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충북 지역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17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 충북추진위원회(추진위·위원장 오기완 충북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달 초 창립총회를 열

고 충북유형문화재 133호로 지정된 청주 최초 서양식 건물 '탐동 양관'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나섰다.

미국북장로교 소속 FS 밀러(한국명 민노아) 선교사 주도로 1906년 설립된 탐동 양관은 1932년까지 모두 6개동의 건물이 세워졌다. 추진위는 국내 홍보와 국제 콘퍼런스 개최 및 연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신

청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추진위는 서울 연세대 아펜젤러관·언더우드관, 공주 중학동 구 선교사 가옥·공주제일교회, 순천 매산중학교, 목포 양동교회·정명여자중 구 선교사 사택, 광주 양림동 선교 동산, 대구 개성학교 아담스관 등의 기독교 유산도 우리나라 근대화에 기여한 선교유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탐동 양관을 비롯한 이들 기독교 유적지는 모두 내한 선교사들이 19세기 말부터 각 도시에 조성한 '선교 스테이션'이다. 교회와 학교, 병원, 선교사 사택·묘지로 구성된 복합선교단지로 한반도와 만주·사할린에 37곳이 만들어졌다. 추진위는 각 지역에 현재까지 남아 있는 선교 스테이션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조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충북 외에도 공주에 추진위가 조직돼 있다.



청년교회 독립시키자... 재정·소속감 확 늘었다

'청년 목회 세미나' 청년교회의 사례와 가능성 공유

경기도 파주 한소망교회(류영모 목사)는 올해 교회 청년부를 청년교회로 독립시켰다. 청년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사역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한다.

필요한 재정도 오롯이 청년들이 부담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자신이 드리는 헌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몰랐던 청년들은 예산 결정과 집행까지 직접 맡아 하면서 헌금의 중요성

도 알게 됐다. 그 결과 올해 1~3월 헌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나 늘었다.

본교회에서 재정·행정적으로 분리된 '청년들이 운영하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예능청년교회(심성수 목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교회에서 '청년목회 세미나'를 열고 청년교회 사례와 가능성을 공유했다. 한소망청년교회 김동주 목

사는 "청년교회는 청년들이 본가에서 독립하는 것과 같다. 재정 독립은 결국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뜻한다"며 "청년들은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자신들만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교회의 중심에서 떨어져 있었다. 교회학교만 해도 성인 교사와 조직자들이 포함돼 있어 그 입김이 세지만 청년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구도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능청년교회는 2015년 본교회인 예능교회(조건희 목사)로부터 독립했다. 첫째 4000만원이던 예산은 올해 2억 7000만원으로 늘었다. 청년 수도 120명에서 200명까지 증가했다. 9년째 예능청년교회를 이끄는 심성수 목사는 "무엇보다 청년 3분의 1이 당회 격의 '운영위원회'를 경험하면서 교회에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고 강조했다.



인기 폰트 자막 단 CCM, 유튜브 올리면 분쟁 소지

정재훈 변호사, 교회의 올바른 저작권 사용법은

교회 전도행사 홍보를 위해 요즘 뜨는 CCM 영상에 인기 있는 서체로 자막을 달아 교회 공식 유튜브에 올리면? 일단 2가지 저작권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온라인에 이미 게시된 영상 콘텐츠는 활용하거나 편집할 경우 자유로운 이용이 허락되지 않은 저작물이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려면 찬송가나 찬양집 등의 출

판사 등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 계약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교회 예배 영상이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콘텐츠에 사용되는 서체(폰트) 등의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부여된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났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확인이 어렵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서체를 활용하면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정재훈 기독교법률가회 변호

사는 최근 기윤실이 발간하는 웹진 '좋은나무'에 '교회가 알아야 할 저작권 문제'를 제목의 기고문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저작권법 체계도 정비돼 가고 있지만 저작물 이용자의 의식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정 변호사가 제시하는 바람직한 저작권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음악·영상 저작물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저작물이다. 예배나 모임에서 찬송과 CCM 등을 연주하거나 찬양을 부르는 것, 구입한 음원을 틀어 놓는 것은 저작권법 제30조에 의거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비영리 목적의 공연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유튜브 등 온라인에 공개된 콘텐츠를 편집한 영상을 교회가 예배 영상의 일부로 이용할 때다. 온라인에 이미 게시된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편집했다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 영상 송출의 경우 공중송신권 이용 허가가 받아야 한다.

돌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명예교수는 국가적으로 자살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아직도 교회 안에는 자살에 대한 발언조차 금기시하는 분위기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살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인식과 믿음이 있는 가운데 자살자와 가족들은 상처받고 소외됐다"며 "교회는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희망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살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상담 지원, 지역사회와의 지지체계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 교회의 전방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했다. 유 명예교수는 "강단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더욱 선포돼야 한다"며 "교회가 연합해 자살 예방지침서나 매뉴얼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영권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교수는 '생명 사랑 목회 실천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주제강연을 했다. 유 교수는 "자살 예방 요인 중 하나는 소속감"이라며 "독거 노인, 은퇴 중년, 학교 밖 청소년, 차상위계층 등을 지지하는 그룹을 만들어야 한다. 이들이 소속감을 느끼도록 하는 목회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슬픈 숫자 '36.5명'

자살공화국 오명 벗어나려면 한국교회의 전방위적 역할 필요

'36.5명'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이는 1만3352명이다. 하루에 36.5명이 자살하는 셈이다. 자살 유족은 한해에 약 8만명, 자살 시도자는 약 13만명이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전 국민의 5.1%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8년 동안 자살률 1위의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질만능주의와 생명경시 문화를 생명존중 문화로 바꾸는 한국교회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교회가 삶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

주고 죽음의 문화를 생명 문화로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생명사랑목회포럼(회장 남서호 목사)은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 조예홀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7차 생명사랑 목회포럼을 열었다.

유수현 송실대 명예교수는 '자살 예방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기조 강연에서 "자살 고위험집단은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들을 위한



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장신대와 업무 협약

신학생과 목회자가 경건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자료 공유

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이사장 최성완)가 장신대(총장 김운용)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 광진

구 장신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행복한 가정은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란노아

버지학교운동본부는 신학생과 목회자가 경건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고, 장신대는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김운용 총장은 "목회자 가정의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해진다고 믿는다. 한국교회의 남성과 가정을 세우는 사역에 쓰임 받은 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가 신학교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최성완 이사장은 "앞으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이끌어갈 신학생들이 행복한 사역을 하려면 가정이 먼저 행복해야 한다.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수화식당', 단절된 삶 사는 농인 교인 일터로 초대...

'복음과 떡' 함께 나누는 공동체

지난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골목에 들어서자 '수화식당'이라고 쓰인 간판이 보였다. 농인들의 언어인 수화를 사용하는 식당이라는 의미를 담은 식당은 2017년 한숲농아인교회(안후락 목사)가 세웠다. 결모습은 여느 식당과 비슷했지만 한쪽 벽에는 수화본 각종 메뉴를 주문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비장애인이 수화로 주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배려다. 식당에서는 수화로 음식을 주문하면 식대의 10%를 할인해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틈을 좁히기 위한 시도다. 직원 중에도 장애

인과 비장애인이 섞여 있다. 식당의 시작은 농인인 안후락 목사와 비장애인인 김소향 사모에 의해서였다. 장애 때문에 단절된 삶을 사는 이들에게 '복음과 떡'을 함께 전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김 사모가 사회복지직에 편입한 것도 농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였다. 궁리 끝에 2011년 포항제일교회 안에 만든 건 아동센터였다. 보통 부모가 농인이어도 자녀 중에는 비장애인이 많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와의 대화가 없었으니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김 사모가 센터장을 맡아

운영했던 아동센터는 농인 교인들의 관심 속에 안정했다. 이런 시도가 수화식당 창업으로 이어진 셈이다.

김 사모는 "2017년 한숲농아인교회가 창립할 때 우리 교인 중 90% 이상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였다"면서 "장애가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만 심는 건 한계가 크다는 걸 깨달았고 목사님과 떡도 함께 잘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고 말했다. 안 목사 부부는 전국의 장애인 공동체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리는 '희망 전도사'다. 그는 "교회 공동체와 우리 직원들이 함께 일군 결과"라면서 "장애 교인이 있다면 우선 성도를 이해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격려했다.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30)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한인세계선교사회의 평촌선언

1977년부터 타민족선교를 위해 흠뻑서 외로운 선교사들이 서로 교통하며 친교를 도모하던 모임인 세계한인선교사회(KWMF)가 지난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안양 평촌의 새중앙교회에서 모여 임법총회 및 제9차 지도력개발회의를 가졌다. 전 세계에 유일하고 독특한 모임인 세계한인선교사회이다.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미국교회에서도 선교사회란 조직은 없었다. 그러나 1988년 개최된 KWMC 제1차한인세계선교대회기회로 그이전의 친교모임에서 더욱 포괄적이고 조직적인 모임으로 발전하였고, 매 4년 마다 모이는 한인세계선교대회(KWMC 선교대회)는 한인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기회가 되어 KWMF는 1000여명 이상이 모여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한국인들의 집단주의 문화적 특성과 선교가 어우러져 선교운동에 긍정적인 면에서 공헌하였다.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주제로 모인 이번 모임에서 300여명의 선교사 경력 10년 이상 된 선교사들이 차세대 동원, 리더십트랜지션, 자립교회 개척, 이주민선교, 현지훈련과 파송, 선교와 타 종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지속되도록 토론하며 성찰하였다.

다음은 2023 평촌 선언이다.

“하나,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해 차세대 선교동원을 주요 과제로 삼고, 진정성 있는 반

자로서 건강한 리더십 이양을 실천하며, 구체적 지도와 다각적 지원을 통해 현지인과 후임 선교사들에게 위임의 단계를 밟아 나가기로 선언한다. 우리

역과 역량을 위임함으로 성경적 자립 교회를 개척하여 복음 전파의 대리자로서 각 민족마다 선교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같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선교 자원이 감소하는 현상 속에서 현지인 선교사 훈련과 파송을 병행함으로 세계 선교를 지속해 나가며, 선교 플랜팅을 통해 현지인과 현지 교회를 선교 동력화하기로 선언한다. 우리는 ‘선교사 교회’를 세웠던 과오를 성찰하고, 상호 동등의 바탕 위에 현지인 선교사를 발굴하여 미래 선교를 지속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다문화된 종교 사회에서 타 종교에 대응하는 선교사 영성을 개발하고, 4차 산업 혁명으로 글로벌화된 세속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대사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여 오던 국내사역자들과 팬데믹으로 인하여 국내로 유입된 선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선교지 사람들을 찾아 나서며 대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하였다. 아직도 몇 개의 교단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단과 선교단체들이 국내 거주 외국인대상 선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역자들을 선교사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모슬렘 사역을 더 활발하게 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모슬렘국가에서 할 수 없거나 아주 제한적으로 진행되던 일들을 한국 내에서 효율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숫자는 극히 제한적이다.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사역자가 부족한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선교대상자가 한국으로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거나 복음 전도자를 만날 기회는 사실상 많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선교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투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도력개발회의에서는 미션 플랜팅에 대한 재인식이 중요한 점으로 인식되었다. 선교지에서 단순한 교회 개척을 뛰어 넘어 풀 사이클의 선교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전도하여 변화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 그 교회가 다른 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는 성숙한 교회로 변화되는 것을 처음부터 목표로 하여 사역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인들을 훈련 시켜 선교사로 내보내는 사역의 보고와 필리핀, 브라질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지인 선교사 파송 사역들이 더 많은 나라에서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dr.yongcho@gmail.com



▲회의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WMF

추와 통찰을 통해 혁신과 변화의 분을 보여, 차세대 선교를 더욱 동력화해 나가기로 선언한다.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해 수준 높은 윤리와 자질을 갖추고 차세대의 의견을 수용하며, 그들의 성장 단계에서부터 선교 교육을 심화시켜 선교 동원을 지속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선교지의 지도

선교 지도자들은 리더십 개발을 지속하여 하나님의 대사로써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리더십 트랜지션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지속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현지인들과 수평적 관계를 통해, 선교 현장에 재생산하는 자립 교회를 설립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현지인 동역자들에게 사

역할을 감당해 나가기로 선언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영성 모델을 따라 기독교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며, 공휴 사역, 문화 사역, 생계와 체류 지원을 통해 이주민들의 필요를 공급해 나가기로 선언한다. 타종교 이주민들을 환대하고 포용하며, 다문화 예배와 복음증거를 통해 선교의 지경을 확장하고, 이들을 자비량 이주민 선교사로 준비시켜 나

가 합니다. 우리는 다민족과 다문화가 공존하는 시기에 이주민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며, 공휴 사역, 문화 사역, 생계와 체류 지원을 통해 이주민들의 필요를 공급해 나가기로 선언한다. 타종교 이주민들을 환대하고 포용하며, 다문화 예배와 복음증거를 통해 선교의 지경을 확장하고, 이들을 자비량 이주민 선교사로 준비시켜 나

가 합니다. 우리는 다민족과 다문화가 공존하는 시기에 이주민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며, 공휴 사역, 문화 사역, 생계와 체류 지원을 통해 이주민들의 필요를 공급해 나가기로 선언한다. 타종교 이주민들을 환대하고 포용하며, 다문화 예배와 복음증거를 통해 선교의 지경을 확장하고, 이들을 자비량 이주민 선교사로 준비시켜 나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26강(신명기 1-9장) 모세의 1차 설교를 중심으로 (2)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모세는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닐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신 2:7)라고 합니다.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은 '머물기 위해서'가 아닌 '거처가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 잠시 거쳐 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주지'가 아닌 '통행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족한 것 투성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애굽'이든 '광야'든 '가나안'이든 자신들의 욕구가 채워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 투성이'인 백성들을 죽이시고 멸망시키시는데 38년을 사용하십니다(신 2:14, 15).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신 3:25)라고 간구하는 모세의 간청에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신 3:26)고 거절하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살아있는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는 반석에게 명하며 물을 내라 하셨는데 반석을 두 번 쳐서 물을 냈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사건 때문이고(민 20:1-13)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가나안 정탐' 사건 때문입니다(신 1:37, 4:21). 그러나 모세는 육신으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한 것으로 보아(마 17:3/ 막 9:4/ 눅 9:30)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것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모세를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제발 '하나님이 가르치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빠지도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얻을 것입니다(신 4:1, 2.5.6, 5:1).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본

신이 없으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없습니다(신 4:7,8).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삼가며 마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을 힘써 지켜 그들이 본 일들을 잊지 말고 그 일들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할 뿐 아니라 그 일들을 아들들과 손자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신 4:9, 6:2).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십계명'과 각종 '규례와 법도'입니다(신 4:13, 14, 5:6-21).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신 5:27)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그때 '이 백성이 네

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신 5:28, 29)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원하신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지를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도 가르치시고(

신 5:31) 모세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지만(신 5:32) 우리는 분명히 알아

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 구원을 위해 구세주 메시야의 필요를 발견하라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다 지키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신 것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출 20:4-6).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아직 연약하여서 실수하는 것과 하나님 자체를 바꾸어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간음'입니다. 어떤 형상도 안됩니다(신 4:15-19, 23). 다른 것은 용서하시되 '우상 숭배'만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소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신 4:24).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로 삼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망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 민족 중에 흠오실 것이고 남은 자를 적게 하실 것이고 그들은 그곳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헛된 신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신 4:26-28).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생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모듈레이션(Modulation)과 부활 찬양

지난 1904년 영국 웨일스에서 일어났던 부흥 운동은 1906년 미국의 아주사 부흥 운동, 1907년 한국의 평양 대부흥 운동 등 20세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부흥 운동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이때 웨일스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중 한 명은 제시 펜 루이스(Jessie Penn-Lewis, 1861-1927)였습니다. 그녀의 평생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소 외치는 중요 문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십자가는 생활의 중심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는 원인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십자가 중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이처럼 그녀의 외침 속에 나타나는 핵심은 십자가 복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1927년 그녀가 죽는 날까지 영국과 유럽 여러 나라를 돌며 평생 이 '십자가의 도'만을 외쳤던 여 사도였습니다. 한편 그녀와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C.S. 루이스(Clive Staples Lewis 1898-1963)의 중심의 외침 또한 십자가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한 말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 복음이 기독교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를 통해 여실히 엿볼 수 있습니다.

이트로 나타내기 위해 두 편의 찬송가를 대입시켰습니다. 하나는 19세기 초반 미국의 장로교 목사인 요시아 홉킨스(Josiah Hopkins, 1786-1830)의 "주 예수의 강림(O Turn Ye)"입니다. 이것은 그가 천식으로 치료를 받던 중 생을 마감하던 해에 작사와 함께 작곡했던 곡입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미국 교회음악에 큰 영향을 주었던 찬송 작곡가 제임스 블랙(James M. Black, 1856-1938)가 쓴 "하나님의 나팔 소리(When the trumpet of the Lord shall sound)"입니다.

작곡자는 이때 조성을 바꾸어 같은 이름 그러나 다른 단조에서 장조(가장조, A major)로 전환하여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더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멋있게 모듈레이션을 하는 중요한 역할이 나타납니다. 곡 중 2마디를 장조(마장조, E Major)를 사용하여 장조(가장조, A major)로 바꾸는 대단원의 전환을 줍니다. 필자는 이 부분에서 독일의 천재 신학자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1906-1945)를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그가 1945년 4월 9일 새벽 플로스엔부르크 수용소(Flossenbürg concentration camp)에서 행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 남긴 유언을 떠오르게 합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 This is the end -for me the beginning of life"

음악 용어 가운데 모듈레이션(Modulation)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조성으로 진행되던 음악이 다른 조성으로 전조 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음악을 길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조성을 다른 조로 바꾸게 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게 하며 이때 그 전조로 인해 음악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복음이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 세상 생이 다하면 마치 음악이 모듈레이션되어 분위기를 바꾸는 것처럼 영원한 천국으로 전환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론 부분을 다시 도입하여 같은 방법인 단조(가단조, a minor)로 삼 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을 표현하고 마지막 "아멘"을 장조(가장조 A major)로 전환하여 완성된 승리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세상은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온통 두려움과 공포들이 더욱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유혹하여 정작 지켜야 할 본질이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체스터턴(Gilbert Keith Chesterton, 1874-1936)이 쓴 책 "정통(Orthodox)"에서 그가 고백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나름의 이단을 창설하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거기에 마지막 손질을 가했을 때 그것이 바로 정통신앙이라는 것을 발견 했다" 정통신앙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이것은 일 년에 한 번 부활절 시즌을 맞아 기념하며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닌 일년 내내, 아니 우리의 평생의 예배 중심에, 그리고 삶의 중심에 기억되어야 할 핵심입니다. 이때 우리가 바로 복음적 삶을 사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한 모듈레이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 시즌에 찬양하는 칸타타 중 박지훈 작곡가가 쓴 부활절 칸타타 "부활"에서 그리스도의 수난,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을 하나의 드라마로 잘 표현하였습니다. 그 중 피날레 곡 "예수"는 전체 이야기를 잘 축약하여 하이라이트로 전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주(introduction)를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화려한 부활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 삼 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 같은 리듬과 음정을 갖고 강조하려는 오스티나토(Ostinato) 기법을 썼습니다. 특이한 것은 삼 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리의 영광을 장조가 아닌 단조(가단조, a minor)로 표현했습니다. 역설의 승리, 그리고 비장함이 감도는 승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어서 연결되는 주 예수의 강림과 이 세상 다 지난 후 천국에서의 영생의 기쁨을 하이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iyoon@wmu.edu

월 수명이 아닌 사명을 따라 삽시다 (스 7:10) 찬595장

BC 458년에 에스라는 2차 포로귀환단을 데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땅에서 대제사장 아론의 집안에서 태어난 학자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바벨론 땅에서 학자와 제사장으로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유다 땅으로 2차 귀환단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에스라가 보장된 그의 삶을 버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 '사명'이었습니다. 말

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사명을 힘써 살아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수명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씁시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보내시는 곳에서 힘을 다하여 사명 따라 삽시다.

화 세상과 섞이면 안 됩니다 (스 10:11-12) 찬292장

에스라는 돌아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들의 정체성에 관한 교육도 병행했습니다. 에스라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그 진상을 낱알이 조사하여 이방 여인과 섞인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으로 (에스라)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에 에스라는 슬퍼하고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과 섞이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세상에 동조하며, 세상을 따라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단호하게 거부하고, 오직하게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섞이면 안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다시 이방 여인과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 일 때문

수 기도한 만큼 삽시다 (느 1:3-5) 찬341장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재위 20년에 왕궁에서 근무하던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통해서 유다 땅의 상황을 전해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의 마음에 한없는 안타까움과 슬픔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느

헤미야의 안타까움은 기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고, 성벽을 재건할 물자요청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고, 기도만큼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삶으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목 작용과 반작용 (느 6:15-16) 찬342장

느헤미야는 사람들과 함께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방해꾼이 등장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하였고,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일하게 했습니다. 방해꾼의 훼방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 공사는 중단없이 진행됩니다. 지속적인 방해도

볼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더욱 기도함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일을 할 때, 반드시 사단의 공격도 함께 옵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는 '작용'이 있을 때, 사단의 공격이 반드시 '반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욱 굳게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금 '아멘' 은 최선의 예배입니다 (느 8:5-6) 찬349장

성벽이 준공된 후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다스릴 지도자를 세우고, 성벽 봉헌식을 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하여 큰 부흥회를 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손을 들고 '아멘'을 외치며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의 의미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입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하는 고백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뜻에만 동의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전하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최선의 예배입니다.

토 회개에 합당한 삶 (느 13:23-25) 찬423장

말씀을 받은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회개'입니다.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 운동 이후에 느헤미야는 강력한 성결 운동을 전개합니다. 대대적인 사회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회개하여 거룩하게 된 후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치 하얀 운동화를 신고 외출하는 것처럼, 오물

이 묻는 것을 지극히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새하얀 운동화는 더러워집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이유는 오늘도 회개하여 정결한 주의 신부로 준비되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회개하고, 회개한 후에는 회개에 합당한 삶,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마 3:8, 눅 3:8)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원내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신교 펴지

독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시 63:3)

Deine Gnade ist besser als Leben.

하나님의 선물, 독일어 초집중 수업

청년의 때 취미로 다녔던 중국어학원, 중국선교를 위한 기록한 결심의 열매는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이신 주님은 독일어에 별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저에게 독일어를 잘 하는 이민자들을 자주 만나게 하셔서 할 수 있다 믿음을 주시고, 또한 독일정부가 난민들의 독일 정착을 돕고자 무료로 교육하는 학원으로 인도해주셔서, 우크라이나 전쟁난민들과 소수의 터키, 이란, 브라질 사람들과 함께 독일어 공부에 열성을 내고 있습니다. 감사히 독일어에 열정과 능력을 주시고, 수학 공식과 같은 독일어 문법을 보며 독일인들의 사고 방식과 규칙과 질서로 문서화된 독일 사회를 이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느 세월에도 하나 했던 독일어로 사역에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희락과 감사로 채워주십니다.

독일 교회 소그룹

저의 독일어 시험을 위해서 독일 성도들이 자원하여 해주신 기도, 개인적으로 받은 독일인들의 첫 기도인만큼 성직에 은혜를 주셨고, 그들의 구원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조용하면서 견고한 믿음을 지닌 젊은이들의 독일 성도들이 곳곳에서 신앙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봅니다.

미국 선교사들의 개척 교회와 전도

터키에서 섬겼던 미국 선교사들이 독일로 이주하여, 독일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터키 2세를 비롯한 독일어가 공용어인 이민자 가정들을 전도하고자 다민족교회를 연초에 개척했고, 전도 사역에 동역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니, 딱딱하게 보이는 독일인들도 아주 친절하고, 유쾌한 일상적인 대화가 진



행되지만, 개인 간증을 하며, 복음을 나누려는 차이나는 극구 거절합니다. 삶과 종교를 철저히 구분합니다. 반면에 독일어에 8년 거주한 이란 여성은(무교) 내가 만난 사람의 그리스도를 들은 후, 복음 전도지를 흔쾌히 받아가는 등 대조된 반응을 보입니다.(뉘른베르크의 가정과 이주민들이 집중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교회

우크라이나 피난민들과 4개월간 수업을 들으며, 모종의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정교회인들이 회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참석하는 우크라이나 교회의 리더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또한 성도들이 말씀과 훈련에 목말라 하는 모습을 보며, 우크라이나 교회의 필요를 위해 만

남을 가졌습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 100만명을 받아들인 독일에 특별히 세우신 우크라이나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뜻밖의 중국교회소식

중국선교시절 함께 동역했던 가정교회의 한 자매가 이탈리아로 이주하면서, 그동안의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교회가 중국의 티베트북지역 뿐 아니라 주변 이슬람 국가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학교를 섬기며, 선교사역에 지속적인 열매를 맺고 있다는 희소식에 감사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독일어 시험을 핑계로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이 줄어들고, 경쟁, 시기, 불안, 초조, 걱정, 조급함, 안락주의 등등 내 안의 뿌리깊이 박혀있는 자아의 부패

함을 보게 하십니다. 한 사건을 통해 You are nothing!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해주시는 주님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 1) 독일어 중급 시험(5월)과 독일어로 복음 전도와 사역에 잘 사용되도록
2) 우크라이나 교회의 젊은 리더 양육, 소그룹에 필요한 자원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3) 독일어 공부로 너무 연약해진 몸 건강 관리, 엄마의 어깨 회전근개과염 치유를 위해
4) 다니엘 목사가 양육하는 독일인 루벤을 위하여, 기도시간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기도와 사랑에 항상 감사드리며,
헤더 전, 다니엘 서 올림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인도네시아

▲ 종족명 따우세 종족

▲ 인구 약 800명

▲ 종교 주술, 정령숭배, 기독교 5%

▲ 기타 지리적 접근이 어려움, 수렵, 채취 생활, 문맹률 92%

▲ 프로젝트 소개 따우세어 성경 번역과 현지인 전도자 훈련을 진행 중이며 신앙과 지성을 겸비한 종족 지도자 배출을 목표로 따우세 청년들을 위한 교육과 제자화에 힘쓰고 있다.

▲ 프로젝트 진행 2006년에 선교사가 들어간 이후 언어 분석과 습득을 거쳐 2013년에 문자를 만들었다. 이후 따우세어 문해 교육 책자들과 찬양집을 출판하였으며 요나서, 룻기, 창세기, 누가복음의 주요 이야기들을 따우세어로 번역, 출판하였고 현재 사도행전을 번역하고 있다.

- ▲ 기도제목
1. 성령님의 역사로 따우세 종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2. 연약한 따우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가르치고 목양할 목사님들이 생기도록
3. 지혜롭고 헌신된 현지인 번역자가 많이 생겨나 따우세어 성경 번역이 잘 이루어 가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Y, NJ, and Hawaii. Includes church names, addresses, phone numbers, and service times.

인/터/뷰

홍은선 선교사 (국제 SIL 디아스포라 디렉터/달라스 국제대학 교수)

“언어는 있지만 글이 없는 그 곳... 숨겨진 1600개의 언어를 찾아라!”

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 선교사로 29년간 사역했으며 위클리프 협력단체인 국제 SIL에서 국제 디아스포라팀 디렉터로, 달라스 국제대학 교수로 섬기고 있는 홍은선 선교사가 본사를 방문했다. 홍 선교사는 세계전역의 언어개발과 문맹 퇴치, 성경번역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국제 SIL의 사역들을 소개했다.

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 & 국제 SIL

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는 (wycliffe.org) 1942년 캐머룬 타운센드에 의해서 설립되어 성경을 모국어로 가지지 못한 언어들을 위해 80여 년간 사역해 오고 있으며 현재 미국 출신 선교사 2,800명이 1,200개의 성경번역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SIL은 (sil.org) 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 협력단체로서 1934년 설립되어 5000명의 회원들이 세계 전역에서 언어 개발, 문맹 퇴치, 성경번역을 하고 있다고 단체를 소개하며 인터뷰에 응하는 홍선교사.

그에게 세계의 언어와 성경번역상황을 묻자, “이 땅에는

게는 선교사가 들어갈 수조차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 언어들은 어떻게 성경으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하며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조차 없는 이 지역과 언어를 찾아 성경번역까지 이뤄내기 위해 조직된 단체가 국제 SIL 디아스포라팀(전략팀)”이라고 설명한다.

국제 SIL 디아스포라팀(전략팀)- 숨겨진 언어 찾기

이미 위클리프선교회를 통해 성경번역사역을 해 오던 홍선교사는 이 땅에 아무도 찾아 갈 수 없는 300여개의 언어와 민족들을 향한 열정을 품고 디아스포라팀 디렉터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우선 이 300여개의 언어들을 찾아내야 하

는 언어를 찾아내야 하는 일이다. 미국tribe Every Nation)이다. 미국의 부호들로 구성된 이 단체에서는 국제 SIL에게 올해 안에 300개 언어 중 10개의 언어를 찾아달라고 요청을 해 왔고 국제 SIL 전략팀에서는 이 일을 시작했다. 12명의 도시 담당자를 세우고 그들을 찾아가 하는 언어가 어느 도시에 있는지를 찾아 나섰다. 이곳 LA만 해도 수많은 인종과 인구, 언어가 있다. 그 수많은 인종과 언어 가운데 숨은 언어를 찾는 일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다. SIL전략팀은 올 일 년 내내 10개의 언어를 찾아내야 한다.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활발하게 사용하는지? 2세대들은 부모님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고국 사람들과 통화할 때만 사용하는지, 성경을 번역할

은 《예수성경누가복음전서》지오. 이후 1885년에는 《마가의 전복음서언해》가 일본에서 개신교 목사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기독교인이 된 이수정을 중심으로 번역되었는데, 이 번역된 성경을 아펜셀러 언더우드가가 가지고 들어왔고 이수정이 아펜셀러 언더우드의 한글 선생님이 활약했다”며 “우리는 우리가 받은 방법 그대로, 그 빛을 이제 갠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한인들이 이 일에 동참한다면 민족적으로 빛을 갠는 셈이 될 것이다”라고 홍선교사는 피력했다.

난민 케어사역의 결과, ‘Tazama’단체 구성 돼

또 하나의 국제 SIL이 하고 있는 사역은 난민 케어 사역이다. 홍선교사는 “난민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겪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 단언하며 자신이 말라위 잘레가 난민촌에 들어가 47명에게 인터뷰했던 상황을 들려주었다. “그때 들



홍은선 선교사

신도 그레이스씨는 펜데믹으로 힐링 사역팀이 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500여명을 치유하는 놀라운 일을 이뤄냈다고 말한다.

SIL에서는 펜데믹 동안 말라위를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재봉틀을 보내 그들에게 재봉을 가르치고 비누가 필요해서

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제반 시설, 운영자금도 필요하다. 그러나 SIL에서는 성경번역 외에는 다른 사역을 더 확장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그럼에도 사역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은, 난민들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살려야 하는 큰 사명

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 글을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며 쉬 없이 달려온 80년! 그러나 아직도 남은 언어들이 많아... 이 일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동참해야

7,388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중 신구약 전체는 724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성경의 단편만 번역된 언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1,600개의 언어가 성경으로 번역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 300개 언어를 쓰는 종족에

는데 이 일이 쉽지 않았다. 함께 일하는 팀원들이 전 세계에서 나온 통계자료, 페이스북 등 모든 것을 동원해 찾아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작업이고 많은 재정도 필요하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미국에 이 일을 돕는 단체가 있다. 바로 ETEN(Every

수 있는지, 혹시라도 그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데,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엔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사탄의 아성’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해가는 일”이라고 표현하며 “영적인 공격의 위협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이기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하며 한글 성경이 번역된 경위를 언급했다.

“최초 한글 성경은 1882년에 만주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와 매킨타이어에게서 한문 성경을 전수받은 이응찬, 서상륜, 백홍준 등이 이를 한국어로 번역함으로써 나

은 이야기는 강간과 살인은 일상이고, 적이 쳐 들어와 그곳을 떠나야 하는데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데리고 떠나면 그들의 걸음이 늦어 모두가 붙잡히고, 그대로 두고 가면 적들에 의해 고문을 당하고 무참히 죽게 될 것이기에 결국 노인들을 묶고 불을 지르고 떠나야 했던 이들 건달 수 없는 트라우마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해결되지 않는 의식주의 현장도 비참했다”고 말한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난민들에게 2019년 ‘트라우마 힐링사역팀’을 파견했다고 한다.

이 힐링 모임에 말라위 목사도 참석하고, 난민목사도 오고 평신도들도 와서 많은 치유를 받았는데, 이 때 치유 받은 평

물비누를 만드는 기술자를 연결시켜 물비누를 만들어서 힐링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팔고, 요리사를 보내 요리사를 훈련시키고, 이렇게 이어지다보니 그레이스 성도를 중심으로 ‘Tazama’라는 단체가 구성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차츰 난민촌의 자살률이 적어지고 예수께로 나오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난민촌에 빛이 비추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동역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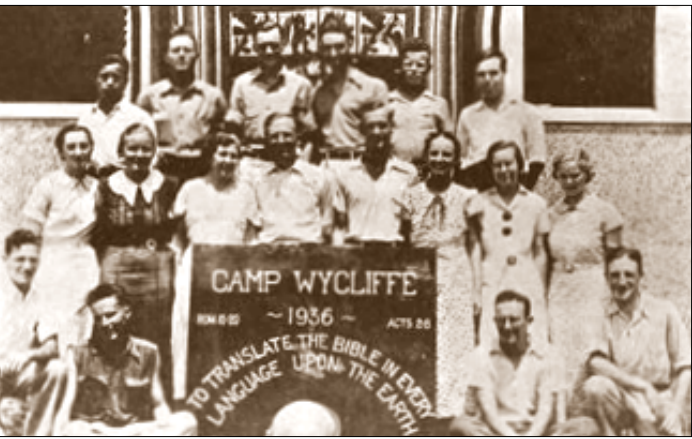
홍선교사는 “이곳 말라위에 힐링 사역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 사역을 위해서는 건물도 지어줘야 하

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토로하며 인터뷰를 통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당부 했다.

우리엔 다소 생소하기도 한 ‘국제 SIL 전략팀’. 이곳을 통해 숨겨져 있는, 언어는 있지만 글이 없는 민족들을 찾아내어 글을 만들고, 성경을 번역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고, 난민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품고 난민촌에 빛이 비추지기를 고대하며 헌신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낸다.

이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사역에 동참을 원하는 이들은 sunny_hong@sil.org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제8기 가정선교 세미나

1. 주 회: 미주 가정선교회

2. 일 시: 2023년 5월 6일 (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3. 장 소: 생수의강 선교교회

19200 Pioneer Blvd. Cerritos, CA 90703

4. 참가비 \$50.00(성인부부) 점심식사 제공 \$30.00(목회자부부,상글)

5. 강 사: 이재근 목사 (미주 가정선교회 대표, Ph.D.) <가정선교-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쿤란) 저자

6. 강의내용: 가정, 가정선교, 가정문제 해결방안

7. 기타 안내

(1)참가신청은 이메일(jaekunlee00@hotmail.com)이나,

전화(562-714-0691)로 하시면 신청서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2)신청서나 수표를 보낼 경우 Pay To 를 LLMC로 명기하시고,

Rev. Jae Kun Lee (11908 Centralia Rd. #102, Hawaiian Gardens, CA 90716)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비전신문, 기독교일보 목회자이비지학교, 주사랑선교회, 생수의강 선교교회

